

나는 무력을 휘두르지 않고 앉아서 천하를 평정한다.(『일본서기(日本書紀)』)

라고 명하신 불살(不殺)의 대어심에 의해서도 충분히 증명되는 일이다. 따라서 진무천황이 채용하신 전법(戰法)은 언제나 불살의 인자한 마음을 출발점으로 한 것은 분명하다. 『일본서기』에는 진무천황의 친정의 신책(神策)으로서

나는 태양신(日神)의 자손으로서 해를 향해 적을 치는 것은, 이는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물러나 약함을 드러내 보이고 신기(神祇)를 제사지내고 태양신의 위덕을 등에 지고 그림자로만 위압을 가한다면, 전혀 칼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적은 반드시 저절로 물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국의 정신 곧 황도애의 건설신(神)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위덕을 배후에 갖고 있는 이상, 여기에 대적하는 적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물리칠 것을 확신하시고, 또 그렇기 되기를 희망하셨다. 실로 천황의 친정은 팔굉일우를 목표로 황도애 보편을 최고이념으로 하시고, 불살에 의한 필승의 신념을 그 유일한 속성으로서 수행하셨던 것이다.

진무천황 이후의 모든 성전도 위와 같은 방정식을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그동안 민간에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권욕 때문에 싸운 사적인 전쟁도 있었지만, 이는 물론 황도애 보편의 성전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가에 따르면 성전으로서의 성전은

진무천황의 동정(東征), 스진천황(崇神天皇)의 시도쇼군(四道將軍)⁴⁴⁾ 파견, 스진천황의 임나(任那) 구원, 게이코천황(景行天皇)의 구마소(熊襲)⁴⁵⁾ 정벌, 야마토 타케루(日本武尊)⁴⁶⁾의 구마소·에조(蝦夷)⁴⁷⁾ 정벌, 주아이천황(仲哀天皇)의 구마소 정벌, 진구황후(神功皇后)의 신라 정벌, 게이타이천황(繼體天皇)의 신라 정벌, 센카천황(宣化天皇)의 임나 구원, 긴메이천황(欽明天皇)의 임나 구원, 비다쓰(敏達)·스슌(崇峻)천황의 임나 회복전, 소토쿠(聖德)태자의 임나 회복전, 나카노오오에노황자(中大兄皇子)의 소가씨(蘇我氏) 토벌, 사이메이(齊明)·덴지(天智)천황의 백제 부흥전, 나라(奈良)·헤이안(平安)시대의 에조 정벌, 원나라 왜구와의 전쟁(元寇戰役), 겐무(建武)중흥전, 난코(楠公)의 의전(義戰), 요시노조(吉野朝) 충신의 의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대명(大明)정벌, 메이지유신 전쟁, 일청전쟁, 북청(北淸)사변, 일러전쟁, 일독전쟁, 만주사변, 지나사변

등 27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성전에서 일관된 것은 황도애 선포의 이념이고, 그 귀결은 진선미의 세계화이다.

44)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황족(왕족)의 쇼군(將軍)으로, 오비코노미코토(大彦命), 다케누나 카와와케노미코토(武渟川別命), 기비쓰히코노미코토(吉備津彦命), 단바미치누시노미코토(丹波道主命)를 가리킨다.

45) 구마소는 일본의 『기기신화(記紀神話)』에 등장하는 씨족의 이름이다. 큐슈(九州)의 남부에 본거지가 있어서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다.

46)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으로, 게이코천황의 아들이다.

47) 고대 일본열도의 동쪽과 북쪽에 살고 있었고, 일본인들에게는 이민족으로 간주된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다.

특히 각 성전에 종군하는 무수한 병졸들이 모두 그 사생활의 전부를 바치고 있는 까닭은, 그들이 평상시 교화에 따른 의지가 강열하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전해지는 전통적인 민족관념의 숭고함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슴에 침윤된 황도애의 발효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힘이 사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전에서 황도애의 현현과 더불어, 일본문화에 흡수된 외래문화에 대한 황도애의 보편적 편재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교·유교에 의한 이른바 동양문화와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서양문화는 일본 국체와 접촉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상극성(相剋性)을 갖고 있었지만, 황도애의 보편적 본질은 이러한 모든 상극성을 적절히 극복하여 일본문화의 독특한, 이른바 황도문화권(皇道文化圈)으로까지 소화할 수 있었다. 문학박사 아마카와 지오(山川智應)는

문명 중에서 최대의 것은 국가이다. 국가 없이는 문명은 있을 수 없다. 국가는 문명을 낳는 어머니이다. 그리고 문명은 국가에 의해 보육되고 또 화합된다. 이 국가야말로 근본 문명이고, 그 위에 발생한 문명은 지말(枝末)문명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란 황도애의 지도하에 선 국가이므로 황도애야말로 모든 문화의 모태이고 황도애의 여과를 거치지 않는 문화는 이른바 ‘서양의 몰락’으로 귀결될 따름이다.

불교의 진체(眞諦)는 전생의 인연을 스스로 깨닫고 절대무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는 동진(東晉)의 명승 혜원(慧遠)의

사문(沙門)은 출가했으니 국왕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 때문에 국왕을 섬길 필요는 없다. 국왕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일반 재가(在家)만이 국왕을 섬겨야 한다.

는 말(‘사문불경왕론(沙門不敬王論)’에 의거함)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국가·국체와는 실로 인연이 없는 중생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국체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국가는 오히려 무관한 것으로서 그 신앙계에서 제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가 일단 일본에 수입되어 황도애의 빛을 두루 받았을 경우, 그것은 쇼토쿠태자(聖德太子)에 의해 “깊이 삼보(三寶)를 숭배하라”고 규정되었고, 일본에서 불교의 사명은 ‘진호국가(鎮護國家)’·‘교왕호국(教王護國)’·‘흥선호국(興禪護國)’·‘입정안국(立定安國)’·‘왕법위본(王法爲本)’이라는 식으로 근본적 변경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애국승(愛國僧)이라 불리는 니치렌(日蓮) 성인이 일본 불교의 최고로 숭배되는 까닭 또한 여기에 있다.

유교에는 ‘효경(孝經)’은 있어도 ‘충경(忠經)’은 없다. 임금에 대한 ‘충’이라는 개념은 부모에 대한 ‘효’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에서 ‘충’은 절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었다. 천자가 천의(天意)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하극상, 선양방벌(禪讓放伐)은 필연적인 실천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유교가 일본에 건너와 황도애에 의해 소화되었을 때, 그것은 천양무궁(天壤無窮)

의 국제 옹호 이론이 되고, “대의는 부모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 되며, “자부(慈父)가 왕의 적이 된다면 부친을 버리고 왕에게 간다. 효의 지극함이다.”라는 식으로, ‘효’는 ‘충’에 의해 규정되고 충효 두 개념이 중국과는 정반대의 관계가 나타난다.

서양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그리스도교는 유일신만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신들을 부정하고 신사 불참 배 문제, 어진영(御眞影) 불경 문제 등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적으로 일원화된 그리스도교, 바꾸어 말하자면 황도애의 보편하에서만 용인되는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양식 각종 교육 사조도 교육칙어에 의해 “이로써 천양무궁의 황운부익(皇運扶翼)”이라는 귀결 점을 부여받고 있다. 자본주의는 일본의 국제적 발전에 입각해 모든 국가자본을 근거로 한다는 유일한 정리(定理)에 의해 규약되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모든 외래문화는 일본에서 황도애의 빛을 두루 받고 일본적으로 일원화됨으로써 비로소 그 부익적(扶翼的)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리는 늘 올바르고, 올바른 것은 늘 그 존재의 극대를 요구한다. 진선미인 황도애가 그 보편타당성을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로써 공간의 진선미화(化) 역시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복숭아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여전히 복숭아 이외의 과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진선미가 다른 공간에 적용되었다 해서 진선미 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는 없다. 황국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오직 융성의 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까닭은, 건국정신인 황도애가 바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상, 진리를 받들고, 중, 진리를 파악하고, 하, 진리의 교화에 매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황국의 신민은 선택받은 민초로서의 기쁨을 자랑하기 전에 그 책임의 중대함을 깊이 새겨야 한다.

제4절 황도애의 불변성

황도애는 진리이기 때문에 공간적 객관에 대한 보편타당성을 요구하였다. 만약 황도애가 그 객관적 타당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3+3=6$ 이라는 산법이 어떤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어떤 사회에서는 부정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성 자체의 붕괴를 드러낸다. $3+3=6$ 이라는 산법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떠한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것인 이상, 단순한 지적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선미의 종합체인 황도애는 필연적으로 그 객관타당성을 보편화할 수 있다.

$3+3=6$ 이라는 산법은 공간적인 타당성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타당성도 불변하는 것으로서 요구한다. 상대(上代)에 있어서 $3+3=6$ 이라는 산법이 현대에서는 $3+3=7$ 이라는 식으로는 변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의 변천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타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황도애 역시 고금을 막론하고 그 진리성으로서의 타당성이 영겁불변하다는 것을 속성으로 지니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없이 변천을 반복하는 외계의 총면(總面)에 대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래의 절대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는 “황도애는 진리이기 때문에”라는 대전제로 입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신대(神代) 최초의

천양무궁(天壤無窮)하리라

는 신칙에 의해 선언된 것이다. 천양은 그 아래와 위에 생성되는 모든 사상(事象)이 생(生)·멸(滅)·회(會)·리(離)라고 하는 유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늘 높고, 늘 넓은 것과 마찬가지로, 황도에는 이를 입는 모든 대상이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무한의 변화와는 별개로 그 자체의 진리성을 영구히 주장하는 것이다. 진리에 반하는 자는 올바른 일에 반하는 자이고, 올바른 일에 반하는 자는 부정을 저지르는 자이며, 부정을 저지르는 자는 불행을 초래하고, 불행을 초래하는 것은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즉 진리에 반하는 일은 자기파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식이 있는 모든 사회에서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인간의 상도(常道)로 본다. 예컨대 부부의 애정을 표현한 말 중에 '2세를 약속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유한한 인간계의 애정을 가능한 한 무한으로까지 연장하려는 의욕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스스로 영겁불변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모든 대상에 의해 영겁불변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다. 여기에 황도애의 실천성이 존재한다. 영겁불변인 진리성을 지닌 황도애는 이를 입는 모든 대상에 최대한의 희열과 변함없는 자기만족을 준다. 이는 황도애 선포 이래 황도애의 계승 주체이신 황통(皇統)이 면면히 이어지는 하나의 계통을 통해 관통되고 있으며, 이를 입는 민초들이 한 번도 변형되지 않은 제국으로서의 국체를 유지하고, 게다가 이 국체가 융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대일본제국은 신대(神代)의 건국 이래 언제나 대일본제국이었고, 대일본민주국도 대일본합중국도 대일본노농국도 아니다.

위로 황도애의 주체를 받들고, 그 아래에서 황도애를 입고, 나아가 황도애 선포에 부익(扶翼)의 총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일본국의 고금을 통틀어 국체의 방정식이다.

그런데 이를 다른 나라에서 살펴본다면 솔로몬의 영화, 진시황제의 꿈이 대체 어디 있느냐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반복무상(反覆無常)한 국운의 진퇴, 무주부정(無住不定)한 국체의 변천을 경험하였다.

외교사에 있어서 일본 최초의 교섭국인 임나와 신라는 이젠 없고, 오노노 이모코(小野妹子)가 들고 간 일본의 국서(國書), “해 뜨는 곳의 천자(天子), 서책을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건네다. 평온하도다”에 의해 일본과의 첫 접촉을 가진 양제(煬帝)의 수(隋)나라 조정도, 당(唐)나라도, 송(宋)나라도 모두 사라졌다. 또 원(元)나라의 폭위(暴威)도 명(明)나라의 융성도, 일시적 국위를 떨치며 멀리 동양에 웅비한 스페인도 포르투갈도 모두 이젠 없다. 과거에 있던 것이 이젠 모두 없는 것이다.

건국의 역사가 아직 짧은 미국은 지리적 이점으로 경제적 부강을 누리고 있지만, 요컨대 오합지졸의 일시적 우거(寓居)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일찍이 독일과 이탈리아 전체를 석권한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지금은 거꾸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발 밑에 굴복하였다. 그 영토에 해가 지는 줄 몰랐던 대영제국이 높은 몸을 받아줄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혁명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대역 폭동이고 소련과 제후한 독일 또한 과거 베르사이유의 굴욕에 눈물을 흘린 역사를 갖고 있는 이상, 역사는 반복된다는 진리를 되새기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몰락 과정을 밟지 않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보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유무의 교체, 무상의 반복은 이들 국가들이 확고한 도덕성에 입각한 건국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고, 혹은 일시적인 이해관계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거나, 혹은 우연히 주어진 힘의 우월을 마치 영구불멸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여 이를 국체의 기초로 삼은 등의 원인에서 기인할 것이다. 이해관계는 경우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 힘은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니 만큼, 이러한 것들에 입각한 여러

국체들은 요컨대 모래 위의 누각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며, 그저 진퇴의 부정(不定), 흥폐의 무상(無常)으로 역사가의 두뇌를 어지럽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도덕성의 종합체이고 진선미를 속성으로 삼고 있는 우리 건국의 정신은, 다른 데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확고부동한 기원이기 때문에 늘 융성이라는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일본의 현재를 가져온 것이다. 진리가 공간적인 타당성과 시간적인 불변성을 요구하는 한, 황도애에도 역시 그 공간적 선포와 시간적인 전진이 약속되어 있다. 일본이 세계에 군림해야 한다는 것은 인과율에 의해 규정된 예언이기에, 황도애의 모습은 세계이념으로까지의 진행형으로서 이끌어내야 하고, 이에 보조를 맞추는 모든 민초들에게는 진행의 부익(扶翼)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게다가 이 임무는 50년의 한 세대로서는 너무나 위대하고도 위대한 임무임을 알아야 한다.

제5절 황도애의 평등성

진리가 진리이기 위해서는 갑(甲) 입장에서는 시인되고, 을(乙) 입장에서는 부인된다는 주관 의존성을 거부한다. 진리는 그 수용자 총체에 대해 동등한 모습으로서 인정될 것을 요구한다. 3+3=6이라는 진리가 1년생에게는 시인되고 2년생에게는 부인된다는 것이 아니라, 산술을 알고 있던 모든 인식자는 이를 진리로 인정한다. 어떤 물체의 중량을 재고 그 물체의 중량의 실질적인 수치가 1관(貫)이라고 한다면 '이 물체의 중량은 1관이다'라는 것이 그 물체의 중량에 관한 진리이어야 하고, 힘이 약한 자가 들면 2관이 되고 힘이 센 자가 들면 반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진리란 그것을 인지하는 개개의 주관의 상황 여하와는 무관하게 인지의 일관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진리의 종합체인 황도애는 그것을 입는 모든 대상에게 평등한 사랑을 쏟는다는 필연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귀족에게도 평민에게도 예조(蝦夷)에게도 구마소(熊襲)에게도 하야히토(隼人)에게도 쓰치구모(土蜘蛛)에게도 류큐(琉球)에도 조선에도 타이완에도, 모든 인종에도 절대 평등의 사랑을 보내고, 이로써 그들이 함께 자라고 함께 살고 함께 황도애 선포의 부익 분자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1919년 사이트 총독이 부임했을 때 황송스럽게도 다이쇼(大正)천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서(詔書)가 환발(渙發)되었다.

일찍이 조선의 강녕(康寧)을 바라고 그 민중을 애무하기를 일시동인(一視同仁), 짐의 신민이 되었을 때 조금의 차이도 두지 않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모두 동등하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한다. (이하 생략)

당시의 수상 하라 다카시(原敬)는,

조선은 일본의 판도(版圖)이지 속방(屬邦)이 아니다. 또한 식민지도 아니다. 즉 일본의 연장이기 때문에 일본과 조선을 동일한 제도하에 두는 것은 근본법칙이다.

라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런 점에 황도애가 세계의 중추이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황도애를 먼저 입었다는 기득권과 우연히 일본 내지에서 태어났다는 인간적 행운을 자랑하면서 황도애의 평등을 망각하고 나중에 참여한 자에 대해 정복자적인 위압을 가하는 일본인이 존재한다면(가정이길 바라지만, 슬픈 일임에는 분명하다), 이는 단순한 인식 부족이라며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 황도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자로서 세계이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황도권(皇道圈) 내의 불순한 것으로 보고 단호히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제6절 황도애의 궁극 목표

삼종의 신기(三種の神器)⁴⁸⁾가 각각 지(知)·정(情)·의(意)를 대표하는 것이라 한다면, 지·정·의의 궁극인 진·선·미야말로 삼종의 신기에 포함된 본질이며, 이 본질을 구현하고 세계를 진선미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삼종의 신기를 받드는 결론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진선미화 되어야 할 세계의 모습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는 늘 유전(流轉)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운명으로 나아간다.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천이 세계의 모습이며, 이를 지도할 최고이념이 발현되지 않는 한, 24시간을 반복하는 것이 세계의 운명이다. 이에 순응하고 이를 이끌어, 그 최고이념이어야 할 황도애는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 변환무상(變幻無常)한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천에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 임기응변의 신책(神策)을 지녀야 한다. 즉 불변적 보편성을 지닌 황도애는 늘 변화하는 시간과 장소에 적응하기 위해 신통하고 자유자재의 유동적 내용을 우리는 황도애의 내포(內包)라 부른다. 황도애의 내포는 어쩌면 세계에 대한 적응성이라 부를 수도 있다.

3+3=6이라는 진리는 그 자체의 상태에서는 하나의 형식적 진리로서 잘못되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6이라는 결과에서 그 전제를 연역할 경우, 6이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3+3이라는 전제 이외에 무수한 전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1+5, 10-4, 3×2, 24÷4 등이다. 그 외에도 무수한 전제적 산술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3+3=6이라는 산술은 진리의 한 형식에 지나지 않고, 6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는 종합적 진리는 아니다. 산술을 연구하는 두뇌의 발달에 따라 그 전제적 형식은 무수히 연구될 수 있고, 따라서 불변성 등에 의해 세계지배라는 궁극 목적을 약속받고 있는 황도애는 그 궁극 목적인 세계지배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한히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에 적응하기 위해 무한하고 자유자재로 융통성이 있는 내포를 지녀야 한다. 황도애 자체는 일정불변한 것이지만 그 내포는 자유롭게 유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내포는 시세(時勢)에 따라 무수히 존재한다. 황도애가 진리의 종합체인 까닭과 진리의 진전과 더불어 황도애 또한 진행형이라는 까닭이 위와 같은 논리에 기인하는 것이다. 내포를 제외한 황도애는(이는 단순한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 네 개의 속성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내포는 황도애의 진리성의 기초를 만드는 바의 진리성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고노에⁴⁹⁾ 공(公)에 의해 제창되고 있는 전체주의적 신체제 역시 황도애 내포의 시세에 적응한 하나의 현현(顯現)으로 볼 수 있다.

48) 역대 천황들이 황위를 증명하는 것으로 물려받았다고 하는 세 가지 물건, 즉 거울·검·구슬이다.

49)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1891~1945), 제34·38·39대 내각총리대신 역임.

제7절 황도애와 정치기관과 민중

내포를 지닌 황도애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인류에 현현하는가? 이미 내포된 황도애의 신책이 각 시세에 따라 어떠한 형식으로 인식되는가?

이는 방법론이다. 그 방법으로서 정치기관을 지닌다.

살아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은 '살아 있는 인간은 살아 있다'라는 점이다. 인간은 죽지 않는 한 늘 살아 있어야만 한다. 이는 모든 상대를 초월한 절대경(絕對境)이다. 따라서 살아 있는 이상, 살아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의 최고의 조건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 최고의 조건을 인간은 행복이라 부른다.

즉 행복이란 생활의 필수조건으로서 욕망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과 절연한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생활이 행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너무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행복을 얻는 최초의 단계로서 군집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집생활은 개개인의 유기적 결합이고 힘의 단결이며, 유무의 대차(貸借) 지반이다. 이를 사회라 부른다.

인류행복을 위해 생성된 사회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각종 형식으로 유전(流轉)하였다. 이 유전의 형식을 낙천가들은 사회의 진전이라 한다. 진전이나 아니냐는 차치하더라도, 어쨌거나 사회가 늘 변화하는 주마등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 타당한 황도애는 그 본질상 일정불변하기 때문에 일정불변한 것을 유전의 대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황도애의 내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이 내포는 반드시 스스로 다양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다양성을 갖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에 대한 황도애 적용의 가능성이 긍정되는 이치이다.

적용 가능한 황도애 내포의 다양성은 대상이 이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는 형식으로써 대상에 적용된다. 즉 각 시대에 살고 있는 각각의 생활인은 황도애의 어떠한 내포가 그 시대에 즉응하고 타당한지를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황도애의 찬란한 빛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올바른 인식을 황도애의 주체인 천황폐하에 주상(奏上)하고 천황폐하의 재가를 거쳐 천황폐하의 이름 아래, 생활인인 자기 자신 및 다른 모든 생활인에게 이를 행할 수 있는 소수의 선택받은 생활인이 정치가이다. 그들에 의해 구성되고 황도애와 민중을 중개하는 기관을 정치기관이라 부른다. 따라서 정치기관의 선악은 황도애 내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혹은 인식부족에 따라 결정된다. 이리하여 정치기관은 변화하는 사회형태의 추이와 더불어 수시로 변경되어야 한다. 가마쿠라(鎌倉)·도쿠가와(德川) 등 정치기관으로서의 일시적 수명 또는 내각의 빈번한 교체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황도애 내포의 올바른 인식은 단지 정치기관에만 일임되어서는 안 된다. 민중 또한 늘 천의(天意)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로써 자신의 의욕을 결정하고, 이 의욕이 천의를 지키는 정치기관의 방향과 일치할 때, 민중은 그 정치에 안주해도 좋은 것이다. 정치가 일부 인간에게 한정되지 않고 민중 모두 좋은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정치 자체의 신체체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예부터 수많은 철학자·정치가·종교가들이 인류에 최대의 행복을 주기 위해 시도하고 노력하고 괴

로워했다. 게다가 그들에 의해 나온 철학적 이론·정치적 기구·종교적 이념은 설령 일시적인 보상은 될 수 있어도 결코 대국적인 성과는 얻을 수 없었다.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개인적인 인간의 두뇌에 의해 고안되고, 때로는 일시적인 세력을 갖고 구축되고, 때로는 단순한 시대의 반영으로서 발생했다는, 극히 박약한 생성 근거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라는 놀라운 동물로서는 아무런 권위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황도애는 개인적인 인간의 두뇌에 의해 고안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세력을 갖고 구축된 것도 아니며, 단순한 시대의 반영으로서 산출된 것도 아닐뿐더러, 신대의 그 옛날 신의 말로서, 범할 수 없는 절대로서, 모든 진리에 대한 연역체로서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기에 황도애가 유일한 세계적 이념이라는 근거가 있다.

제8절 황도애와 2600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국 2600년의 사회형태는 대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변천을 거쳤다.

- (1) 씨성(氏姓)제도의 시대(태고 적부터 다이카개신(大化改新)까지)
- (2) 군현(郡縣)제도의 시대(다이카개신에서부터 나라(奈良)시대 말까지)
- (3) 장원(莊園)제도의 시대(헤이안(平安)시대)
- (4) 분권적 봉건제도의 시대(가마쿠라(鎌倉) 막부의 개설에서 도쿠가와(德川) 막부 개설까지)
- (5) 집권적 봉건제도의 시대(도쿠가와 시대)
- (6) 자본주의 제도의 시대(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1) 씨성제도의 시대

일본의 사회제도사에 있어서 최초로 나타난 형태이다. 씨족이 사회조직의 근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씨족이란 동조(同祖)신념 위에 구축된 단체이고, 씨의 위가 이를 지배하고 그 밑에 부민(部民)·노예 등을 예속시키고 있었다. 천황은 직속 토지와 인민을 영유하는 동시에, 이들 모든 씨족을 통괄하고 있었다. 씨의 직업은 대대로 세습했으며, 혈연을 기초로 토지와 인민을 사유(私有)하는 사회형태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 뒤 씨의 분열과 병합은 자주 일어났고, 소아씨(蘇我氏)와 같은 대 씨족의 발호로 인해 큰 불공평을 일으켜 자기모순에 빠지면서 마침내 다이카개신에 의해 변혁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군현제도의 시대

다이카개신에 의해 씨성의 제도는 군현의 제도로 변경되었다. 즉 행정구역을 확립하고 중앙정부가 파견한 관리에 의해 통치되었다. 종래의 직업 세습은 폐지되었고, 인재등용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토지와 인민의 사유를 금하고, 일체를 먼저 천황에게 봉환(奉還)하고 반전수수(班田收受)의 법·조용조(租庸調) 제도하에 새로운 토지와 인민의 정치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상이 높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3) 장원제도의 시대

헤이안시대에 들어서 군현제도의 근본적 원칙인 토지와 인민의 공유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즉 사간전(私墾田)·사사영지사전(社寺領地賜田)·공전(功田)이 증가하고 사유지가 많아졌으며, 정부의 행정징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각지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장원제도이다. 장원의 인민은 영주의 지배 아래 장토(莊土)를 경작하고, 영주에게 연공과역(年貢課役)을 제공한다는 토지와 인민의 사유제였다. 이 장원은 매년 증가하여 다이랴일족(平族)이 영유하는 곳이 무려 500여 개에 이르렀다. 무사는 장원을 기반으로 한 지방의 호족이었다.

(4) 분권적 봉건제도의 시대

장원제가 진화한 형태는 요리토모(賴朝)⁵⁰가 가마쿠라에 막부를 연 봉건제도였다. 각지에 수호(守護)·지두(地頭)를 두고 군량미를 부과하고 전지(田地)를 지급함으로써 전국통제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봉건제란 주권자가 제후들에게 봉지(封地)를 주고 그 대가로 제후들의 충성을 받은 제도이다. 제후는 그 봉토 내의 인민을 세습적으로 통치하고 인민은 신하로서 제후에게 복종하고 있었다.

(5) 집권적 봉건제도의 시대

초기의 봉건제도는 극히 분권적인 것이었다. 전국시대를 거쳐 도쿠가와 막부에 이르러 비로소 강고한 중앙집권에 의한 일원적 통치가 완성되었다. 막부의 직할지는 전국의 4분의 1에 이르렀고, 정치·경제의 주요한 토지를 직할하였다. 쇄국정책으로 외래의 자극과 교란을 피하고 제후의 통제적 배치, 참근교대(參勤交代)⁵¹의 실시로 도쿠가와와의 세력은 압도적인 집권성을 띠게 되었다.

(6) 자본주의 제도의 시대

그러나 이 봉건제도 말기에는 계급의 혼란이 매우 심각했고 무사의 생활은 궁핍했으며, 조닌(町人)⁵²의 경제적 부흥과 더불어 막부는 재정적으로도 무력적으로도 제후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올바른 국체론에 의해 반국체적 막부의 존재는 부정되고, 메이지유신에 의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제도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대정봉환(大政奉還)⁵³·판적봉환(版籍奉還)⁵⁴·폐번치현(廢藩置縣)⁵⁵·계급폐지 등과 같은 오늘날의 사회제도가 탄생하였다.

50)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 1147~1199), 가마쿠라 막부의 초대 쇼군(將軍)이다.

51) 에도(江戸)막부가 각지의 다이묘(大名)들을 정기적으로 에도(현 도쿄)로 참근, 즉 불러들인 제도이다.

52) 에도시대에 도시부에 살고 있던 상공업자를 가리키고, 지주를 의미하기도 한다.

53) 정권을 천황에게 되돌려 준다는 뜻으로, 1867년 10월 14일 에도막부의 제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가 정권을 조정에 넘기겠다고 전하고, 조정은 15일 이를 받아들인 것을 말한다.

54) 1869년 전국의 각 번주(藩主)들이 토지(版)와 인민(籍)을 조정에 반환한 것. 메이지 정부가 중앙집권을 위해 취한 조치로, 폐번치현의 전제가 되었다.

55) 1871년 메이지 정부가 중앙집권화를 위해 전국의 261개 번(藩)을 폐지하고 부(府)·현(縣)을 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사회형태는 2600년 동안 수많은 변천을 거쳐 왔다. 그러나 늘 변천하고 있던 일본의 사회형태 깊숙한 곳에 언제까지나 변천하지 않는 존엄한 실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민족의 모습이다. 여섯 가지 사회형태의 변천 속에서 천황은 언제나 민족의 중추로 계셨다는 점이다. 이는 천황이 황도애의 주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황도애는 진선미의 종합체이기 때문에 모든 변화에 임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일정불변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황도애에 의해 지도되고 있는 일본의 사회형태는 가까운 장래에 필연적으로 이념적인 사회로까지 양양(昂揚)될 수 있는 것을 약속받고 있다. 왜냐하면 황도애의 본질은 불변성인 동시에 보편성이기 때문이며, 진리의 종합체는 이념의 세계에서 비로소 그 완성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념적인 사회란 미래에 속하는 사회이고, 수많은 이상가들이 꿈에 그리던 사회이며, 황도애가 세계에 군림할 때의 새로운 사회이다. 모든 민족의 생활을 도덕성의 종합체로 연결할 수 있는 이상향이고 절대경이며, 민족 간의 투쟁도 없고 계급 간의 대립도 없으며, 자본 간의 상극도 없고, 인류의 발생 이래 모든 투쟁의 뒤에서 꿈꾸고 있던 평화경(平和境)이다.

메이지천황의 어제(御製)⁵⁶⁾를 봉독하면서 본 장을 마치도록 한다.

아마테라스 신의 위광을 우러러본다.
열려질 다음 세상에 만나게 되더라도 .

제2장 조선의 현재

제1절 조선의 과거

제1장 서두에서 사상(事象)의 생성에 관한 작은 철학적 이론을 서술하였는데, 이 이론은 조선의 과거를 돌이켜 봄으로써 또 다른 입증의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0여 년 전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민족(漢民族)의 이른바 낙랑문화의 유물 및 1500년 전 경주 일대의 신라문화의 고적 등은 조선이 '아름다운 나라'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미(美)가 없는 곳에 문화는 창조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강산의 절승(絶勝), 백두산의 웅장한 모습은 아름다운 신화와 무부(武夫)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강가의 옥토는 평화의 진전을 약속하고 있었다.

태고적 그 옛날, 북방대륙에서 이주한 조선의 원시주민은 농경과 수렵·어업으로 자족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이른바 한족(韓族)이라 불리며 조선의 남부에 거주한 70여 개의 국가와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족(高句麗族), 함경 지방의 옥저족(沃沮族), 강원 지방의 예족(濊族) 등은 평화로운 목가적 생활을 아름다운 자연에서, 소박한 가요(歌謠)에서, 원시적인 연애(戀愛)에서 윤택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전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 한민족(漢民族)의 침입으로 그들의 평화로운 꿈은 깨지고, 소극적으로 민족의 단결을 자극받았으며, 적극적으로 무력 투쟁을 강요받았다. 고구려·백제·가라(伽羅)⁵⁷⁾.

56) 천황이 만든 시문(詩文) 등을 가리킨다.

57) 가야(伽倻).

신라 등은 중국 한민족의 압박에 대한 조선 원시주민이 조직한 국가체제였다. 중국의 조선에 대한 관계는 태고 적부터 침략의 전주곡으로 시작되었다.

고구려·신라·백제·가라 등 각 국은 그 생성에 있어서 외부적 침략에 대한 소극적 방어로서 발생한 것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정치적 및 신앙적 중추를 가짐으로써 국가적인 적극성을 부여받았다. 즉 각 국의 군주는 정치적 주권인 동시에 피통치자의 생활 목표이기도 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은 스스로 '천제(天帝)의 아들'이라며 민족의 중추가 되었고, 백제의 시조 온조왕은 동명왕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천제의 영광을 입었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그 이름의 '밝게 빛나다'는 속성에 의해 태양으로 비유되었고, 가라의 여섯 연방국가의 각 시조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알에서 태어난 자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 건국 시조들의 공통적인 점은 그들 모두 자연계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인 '하늘' 혹은 '태양'으로 자신을 상징하고, 이로써 민족의 모든 생활을 하나의 중추와 연결하려고 기도한 점이다.

민족의 결속을 천제 곧 군주라는 중추 의식으로 일원화한 것은 모든 도덕성의 종합체인 황도애를 그 중추 의식으로 삼는 일본민족성의 근거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지만 일본민족의 황도애가 진선미의 종합체 그 자체였던 데 반해, 조선 고대의 민족 중추는 천제를 모방한, 진리에 대한 모방체(模倣體)였다. 모방체는 어디까지나 모방체일 뿐이고, 진리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민족 발전의 추진력이 되지 못하고, 각 국가가 '하늘'을 시조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뒤 마침내 신라에 의해 통일된다는, 개개 국가의 붕괴를 전제하게 되었다. 조선의 국가적 비극은 실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과거 통일의 패업(霸業)을 성취한 신라도 그저 경주의 고분에 떠도는 그 문화의 여운으로써 월성(月城)에 시드는 추초(秋草)와 함께 회구(懷舊)의 여정을 깊게 드리울 뿐이다.

조선반도는 이 땅에 생멸하는 수많은 국가가 확고불발(確固不拔)한 건국의 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무력에 의해 일러서고 무력에 의해 무너지는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해왔다. 이리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모두 '비극의 자식'이라는 숙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리랑의 애조(哀調)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비극적 민족의 필연적인 소리이다.

반복무상한 국체의 교체에 환멸을 느끼고 외적의 무단한 침입에 위협받고 권력에 대한 강제적 복종에 지친 '비극의 자식'들은 국체의 교체가 없고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으며 자기 자신이 권력이었던 태고적 옛날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되었다. 유구한 흐름에 따라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키우며 사랑을 노래하는 기쁨은, 무력의 강제주권에 내몰려 이름 없는 전쟁터에 그 주검을 내던지는 무모함을 극도로 배척하였다. 산에서 사냥하고 바다에서 고기 잡으며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감격은, 산을 넘어 바다를 건너 까닭도 없이 옥토를 유린하는 외적의 침략을 극도로 증오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은 퇴영적·우유부단·회고적·비순종적인 것으로 변하였다. "안녕(오하요우(才우))"이라는 말 대신 "잘 잤어?"라고 하고, "안녕(곤니치와(今日八))"이라는 말 대신 "밥 먹었어?"라는 인사는 단순한 풍습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자가 현재를 긍정하는 힘인 데 반해, 후자는 그저 생활의 과거만을 묻는다. 회고적인 민족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조선의 대지에 생멸하는 모든 국가는 세계의 이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확고불발한 건국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체의 변천 무상하고, 따라서 파괴적이고 퇴영적인 민족의

성격을 키우고 있다. 파괴적인 민족성이 항구적인 문화를 건설하지 못하고, 퇴영적인 민족성이 국력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이상 문화의 건설이 없고 국력의 발전이 없는 국가가 붕괴되는 것 또한 자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 근거에 확고한 진리성이 없는 국가는 설령 일시적인 융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영속성을 누릴 수는 없다.

과거에 이러한 건국의 정신을 갖지 못한 조선이 늘 비극의 무대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과거이기에 체념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또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유구한 미래에 조선의 모습이 구태의연함을 지속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태를 벗어나 비극의 무대를 새롭게 출발하는 제단으로 만들고, 비극의 자식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의 선봉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이는 우리가 생활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한, 필연적으로 욕망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

제2절 과거 일본과 조선의 관계

조선의 새로운 출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거 일본과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한다. 일본과 조선의 상관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황도애가 조선에서 지닌 내포를 인식하는 동시에, 황도애가 세계이념으로까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선이 그 첫 단계라는 인과율을 발견할 수 있다. 사상(事象)과 사상(事象)이 서로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현상은 사상의 발전과정 속의 단순한 변이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필연적인 인과율이 당연하고 절대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즉 인과율을 벗어난 사상 간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양자가 그 영역의 어떤 부분을 섞고 어떠한 형식에서 상관적으로 결부되기 위해서는 양자의 속성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될 요인을 발견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수천 년 동안 일본과 조선의 상관관계 역시 필연적인 인과율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반드시 상관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요인이 양자 안에 그 속성으로서 잠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 요인이란 무엇이었을까?

(1) 정신적 요구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허이다. 조선에 생기(生起)하는 여러 국체는 당연히 가져야 할 확고한 건국의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에는 누구나 욕망하는 좋은 건국 정신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에게 없다는 공허감을 이웃에 있는 것을 욕망함으로써 충족하려 하였다.

일본의 건국 정신은 그 본질상 공간적인 무변확충(無邊擴充)을 요구한다. 무변확충이란 무한대의 연장이다. 연장이란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미치는 것이고, 조선은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건국 정신의 본질과 조선의 결핍성은 모든 장애를 끊고 서로 접근해야 하는 요인이 되었다.

(2) 지형

양자는 현해탄의 좁은 해역을 사이에 두었을 뿐, 완전히 인접해 있어서 부산에서 쓰시마(對馬)를 바라보고 쓰시마에서 이키(壹岐)로, 이키에서 기타큐슈(北九州)로 외칠 수 있다.

고대 전설에 나오는, 스사노오노 미코토(素戔鳴尊)가 소시모리(曾尸茂梨)로 내려간 일,⁵⁸⁾ 야쓰카 미즈오미쓰노노 미코토(八束水臣津野命)가 나라를 끌어당겼다는 고사,⁵⁹⁾ 탈해(脫解)의 표류, 연오랑(延鳥郎)이 바다를 건너간 일 등은 양자의 지형이 인접한 데서 나오는 상관적인 모습이었다.

(3) 고고학

지형의 인접은 고고학적으로 많은 유사한 유물을 낳았다. 멀리 석기시대의 석포정(石庖丁)·돌도끼·돌화살촉·석검(石劍) 등 서로 비슷한 형태이다. 마찬가지로 조선의 고대 토기의 네 가지 원형은 모두 일본의 토기에서 계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구옥(勾玉)의 유사점이다. 이 미술품은 일본과 조선 외에는 어떠한 국토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재료가 중국 오지에서 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본과 조선에만 비슷한 형태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단지 지형이 인접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두 민족이 미를 감상하는 눈에 섬세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과 밀접한 동일 문화를 갖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4) 체질

국가가 같은 위도와 경도에 위치한다는 것은 인종의 체질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중대한 원인이다. 황색인종 중에서도 일본민족과 조선민족은 참으로 유사한 체질을 갖고 있다. 특히 긴키(近畿) 지방의 일본인과 중부 조선인은 가장 가까워서 그 차이가 일본 내지의 지방적 차이보다 훨씬 작다고 한다. 체질이 같다는 것은 또한 혈액이 섞여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선일체를 긍정하지 않는 속론(俗論)에 대한 반증이 된다.

(5) 언어

국어와 조선어는 주어와 술어의 배치법에 있어서 완전히 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 언어학자에 따르면 양자는 문법이 거의 같은 뿐만 아니라 발달한 개개의 언어 그 자체 또한 어원적으로 상관적인 부분이 많다고 한다. 이는 사실에 입각한 것인데,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인접한 지형을 갖고 있고, 신화시대부터 일가(一家)와 같이 빈번한 교섭을 맺고 있던 두 민족이 완전히 다른 국어적 원천을 지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상과 같이 필연적 요인 아래 양자는 그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관계는 역사상 어

58) 스사노오노는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동생이다. 난폭한 성격 때문에 아마테라스에게 추방당한 뒤 신라의 소시모리(曾尸茂梨=蘇尸茂梨)로 건너갔다고 전해진다.

59) 구니비키(國引耆)라고 하는데, 야쓰카 미즈오미쓰노노 미코토(八束水臣津野命)가 신라에 그물을 던져 이즈모노쿠니(出雲國)로 끌어당겼다는 전설에서 나왔다고 한다.

떠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일본의 국제적 교섭은 모두 황도애의 선포를 그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조선에 대한 관계 역시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신화시대의 양자의 교섭은 전설로서 과학의 논외에 두더라도, 양자의 관계는 멀리 스진천황(崇神天皇) 시대에 임나(任那) 구원이라는 우의적(友誼的)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관계는 진구황후(神功皇后)의 신라 정벌, 센카천황(宣化天皇)과 긴메이천황(欽明天皇)의 임나 구원, 비다쓰천황(敏達天皇)과 스순천황(崇峻天皇)의 임나 회복 및 쇼토쿠태자(聖德太子)의 임나 회복, 사이메이천황(齊明天皇)의 임나 부흥 전쟁을 거쳐 덴지천황(天智天皇) 시대에 일시적인 종지부를 찍었다. 종지부를 찍게 된 이유는 국내외의 정치기구체가 올바른 황도애의 내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외형적으로 보건대 임나에 대한 교섭은 실패로 끝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황도애의 외적 선포, 황도애로의 귀화인들이 남긴 각종 유적 또는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역대 대군들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셨는지, 긴메이천황의 유언에서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즉,

임나를 예전과 같이 만들도록 하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일본과 조선의 관계의 제1차적 교섭은 수많은 파란을 남기고 증절된 형태가 되었다. 증절된 이후 일본은 그간에 섭취한 대륙의 문화를 스스로 소화하면서 독특한 문화권으로의 자기충족적인 진취를 도모하는 동시에, 황도애 내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열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때 일본과의 교섭이 막힌 조선에서는 신라통일이라는 국가적 위업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 국가적 위업을 달성한 해는 조선민족에게 눈부신 재출발의 해가 아니라 무력에 의해 민족의 자부심이 짓밟힌 비극의 탄생일이었다. 당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라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문화를 이입함으로써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늘 대륙의 무력에 위압당한 노예적 근성은 힘 이외의 올바른 이념을 욕구하는, 충족되지 못한 민족성을 키웠다. 이는 신라가 고려로 바뀌고 고려가 이씨조선으로 바뀌어도 그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의욕은 발전의 전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무엇인가를 의욕하고 있던 조선은 청일전쟁에 의해 만족할 만한 가능성을 약속받았다. 청일전쟁은 조선에서의 중국민족의 역사적 무압(武壓)에 대해 황도애가 반격하는 최후의 해답이었다. 그 이후 10년, 러일전쟁에 의해 러시아로부터 벗어난 조선은 발 빠른 황도애의 진군에 심신을 모두 바쳤다. 1910년은 그야말로 조선이 그 국가적 독립을 잃은 슬픈 해가 아니라, 잔해에 가까운 병든 몸이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기쁜 해였다. 신라의 통일은 나라를 부여하고도 기쁨을 빼앗았고, 한일병합은 나라를 잃음으로써 기쁨을 되찾았다.

(다음 호에 계속)

〈출전 : 星野柑河(舊名 裴柑河), 『肇國の精神と朝鮮の將來(上)』, 『綠旗』 第5卷 11號
綠旗聯盟, 1940년 11월, 137~158쪽〉

조국(肇國)의 정신과 조선의 장래(하)

성야상하(星野相河, 호시노)

(옛 이름 배상하)

제3절 병합 이래 30년간의 조선

사람들은 종종 사실과 진리를 혼동한다. 진리가 사실임을 알면서도 사실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반대 논리를 간과한다. 이는 시종일관 사실을 중시하는 작금의 세태에 기인하는 것이다. 과학주의·전체주의가 작금의 정치사상적 지배자라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너도나도 과학주의로, 전체주의로 돌진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기초적 진리성을 냉정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규명한다는 여유를 잃었다.

진리는 어디까지나 사실임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로서 표면적으로 아직 사실로서 나타나지 않은 진리성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3+3=6$ 이라는 산술은 유아·미개·야만인 등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형식상의 진리이다. 따라서 사실적 미현현(未顯現)은 진리 자체의 존재성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종합체인 황도애(皇道愛)는, 그런 까닭에 스스로 세계의 중추이념으로까지 발전할 것을 욕망하고 발전의 각 과정의 자기 확충을 요구하는 것이다. 황도애가 아직 세계의 중추이념으로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이 황도애가 발전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황도애 자체의 진리성을 손상시키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황도애에 직면하는 모든 대상이 황도애에 직면하면서 여전히 수많은 난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황도애의 내포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대상 자체의 주관적 결함일 수는 있어도, 황도애 자체의 보편성을 손상시키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조선은 1910년을 계기로 황도애에 직면하였다. 과거 수천 년 동안의 역사적 필연성은 현 부대에 새 술을 담은 것이다. 조선은 이에 직면하는 근본조건으로서 그 국가적 독립성을 잃었다. 이 모습은 편협한 민족적 감정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슬픈 추억의 씨앗이었다. 마치 메이지유신기의 사바쿠(佐幕) 출신자들이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막부에 대한 인간적 충성을 다 바친 심정과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이 취한 태도,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 세계에 취해야 할 방법을 역사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검토할 때, 감정·추억·심정은 단순한 감정, 단순한 추억, 단순한 심정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각성이야말로 황도애의 올바른 내포를 인식하는 것이고 일본 전체의 세계 통일적 위업을 의식하는 것이며, 병참기지로써의 조선의 사명을 떠안는 것이다.

소극적이긴 하지만 가령 이런 것을 상상해 본다.

문화와 경제를 비롯한 그 밖의 사회적 조건에 있어서 세계의 후진국이었던 조선이, 가령 30년 전 황도애에 직면한다는 역사적 전환이 없었고, 그 상태 그래도 자신의 숙명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쯤 조선은 어떤 국가형태가 되었을까?

이에 관한 예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 (1) 백색인종에 예속
- (2) 중국의 속령
- (3) 독립국가

첫 번째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해수면이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 늘 극동을 물색하고 있는 러시아가 반드시 조선에 그 초점을 발견했으리라는 것이다. 무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조선이 무력으로 굴복당해 백색인종의 속국이 되고, 평화로운 항구에는 러시아의 태평양함대가 정박하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조선인들은 황색인종이기 때문에 모든 지적(智的) 문화의 문호를 폐쇄당하고 흑색인종과 마찬가지로 농노의 운명에 처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러일전쟁 전 조선의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1년 동안 있었고 거기서 왕명이 나왔다는 점, 또 조선병사가 러시아군의 지도를 받고 러시아가 함경북도의 광산과 산림 별채권을 가져갔고, 마산 조차(租借)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지 않았던가. 그 뒤 러시아제정의 붕괴와 더불어 조선도 적색 러시아의 공산주의적 농·공장으로서는 백인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기구라는 존재를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령, 다행히 러시아의 호구(虎口)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영국과 미국의 극동정책은 반드시 조선에 파급되어 곳곳에 제2의 홍콩이 생겨났을 것이다. 스스로 먼로주의를 외치면서 최대한 이기적인 본능을 발휘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미국은 일본의 진로를 저지하기 위해 조선을 제2의 필리핀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상상도 할 수 있다. 러일전쟁 후의 만철(滿鐵)사건 개입, 중국에 대한 일본의 단독투자 견제, 일본의 시베리아 단독출병 견제, 파리평화회의에서 산둥(山東) 반환 강요, 인종평등안(案) 무시, 독일령 위임통치 지역에 대한 제한, 워싱턴 9개국 회의에서 일·영 동맹 폐기를 책동하고 중국에 대한 행동을 속박, 불평등한 해군 비율을 독단적으로 처리, 만주사변과 상해사변 당시 영국에 대일무력간섭을 제안, 중일전쟁에서 일관되게 장제스 정권을 지원, 가솔린·철강 등의 전면적 수출 금지를 결정하고 네덜란드·프랑스·인도 교섭에 간섭하는 등 참으로 집요한 적성(敵性)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미국은 반드시 조선을 제압하여 일본의 발을 봉쇄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과거 역사에서 반복한 것처럼 조선을 굴복시켜 바다 건너 일본에 대한 병참기지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문화의 쇠퇴와 더불어 조선도 세계의 수준에서 뒤처지고 백인이 중국에 가한 온갖 역사적 굴욕을 함께 체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다행히 조선이 러시아와 중국 등의 개입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독립국가로서의 체제를 꾸려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운명이 존재한다.

- (1) 국가가 융성하고 그 문화권이 세계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 (2) 국가가 쇠퇴하고 세계의 문화에 뒤처진다는 것.

이와 같은 두 가지 운명 중에 조선이 처하게 되는 것은 불행히도 두 번째 운명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그 문화를 세계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조선 역시 30년 동안 상당한 진보를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단정하는 낙관론은 인과율을 범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상(事象)은 반드시 인과율에 따라 생성하는 것이고,

분명 그랬다는 과거에 의해서는 마땅히 그러리라는 현재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의 분명한 과거란 녹기연맹(綠旗聯盟)의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지형·건국·문화·사회의식에 있어서 네 가지의 결합이 있었다.

첫째는, 일본처럼 대륙과 바다로 차단되었다는 지위에 있지 않고, 대륙과는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반도였다는 점, 때문에 북방민족이나 한(漢)민족의 힘이 강대해지면 곧바로 그 힘이 반도에 미쳤다는 점.

둘째는, 그로 인해 일본 국체와 같이 강고한 민족의 결속 증추를 갖지 못했다는 점, 따라서 다른 민족의 침입에 대해서는 힘이 약하고 외래문화가 압도적으로 들어올 때 자기 본래의 것을 버리고 말았다는 점.

셋째로는, 위와 같은 관계로 인해 끊임없이 대륙의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서서히 외래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여유가 없었다는 점. 따라서 민족의 상층문화와 하층문화의 차이가 크고, 바꾸어 말하자면…… 건전한 중산계급이 없었다는 점. 극단적인 비교이지만, 일본의 헤이안(平安) 시대의 경직된 그것과 같은 것이 병합 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넷째로, 세 번째 이유에서 조선에는 한 번도 단호한 사회변혁이 없었다. 따라서 사회의 하부 구조를 구성하는 것의 생활의욕이 사회 지도 분야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민족사회 그 자체는 매우 빈약하게 구성되었다는 점.

이러한 요인들을 갖고 있는 이상, 전체적인 갱생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는 한 우수한 국가적 현재와 미래를 결부시킬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병적 요인들을 지닌 조선이 마침내 역사적 필연성에 의해 전체적인 갱생을 향한 출발점을 갖게 되었다. 한일병합이다. 한일병합은 조선에서의 백인의 횡포, 중국의 침략, 열등국가라는 기록에 찍은 최후의 구두점(句讀點)이다. 그것은 맹목적 의지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부여할 만해서 부여하였고, 마땅히 부여받을 만해서 부여받은 필연적인 인과율에서 기인한다. 왜냐하면 황도애의 지칠 줄 모르는 진전성과 조선 자체의 열렬한 의욕의 일치가 이런 커다란 여명을 찾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황도애의 진선미성이 허우적거리는 조선에 의해 올바르게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한일병합은 논리도 문예도 미술품도 아니다. 이미 부여받은 거대한 사실이다. 게다가 이 사실은 진리성을 그 배경에 갖고 있다.

사실에 반하고 진리를 숨기는 것은 허위가 아니면 비열한 짓이다. 허위와 비열은 생활에서 긍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사실이고, 또 이 땅에서 다른 새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것 역시 사실인 이상, 이 땅의 모든 생활인은 이 거대한 사실을 긍정하고 깨닫고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불행한 과정은 그들에게 부정하고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일병합 30년 동안 조선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루었을까? 역사가에 따르면 그 걸어온 길을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 병합반대운동 시대(병합~1918년)

제2기 민족자결주의운동 시대(1919년~1923년)

제3기 공산주의운동 시대(1924년~1931년)

제4기 동요·모색 시대(1932년~1936년)

제5기 신일본건설운동 시대(1937년~현재)

여기에 나타나는 황도애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1기 병합반대운동 시대

인간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사회의 규약을 제정하였다. 이를 도덕률이라 부른다. 그리고 도덕률은 인간에 의해 작성되는 동시에 인간에 의해 파괴된다. 이를 죄악이라 부른다. 도덕률과 죄악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지닌 인간성의 모순이다. 이 모순성은 옛 원시적인 본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하기 전의 소박한 자연적 본성에 기초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반대행동은 모두 옛 마음을 향한 동경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병합 당초의 병합 반대운동 역시 주어진 새로운 것에 대한 반동으로서 옛 모습을 동경하는 모순성의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자면, 급격한 변화를 만난 일부 사람들의 마음의 동요이고,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변뇌였다. 운동 자체가 지녀야 할 대국적인 근거와 필연적인 진리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민충정(閔忠正) 이하 수많은 이들의 자결, 미국인 기자 스티븐스 저격, 이토 히로부미 공(公)의 조난, 이준(李鏞)의 할복, 의병의 봉기 등 반대운동이 일시적 소요에 지나지 않고 데라우치(寺內)·하세가와(長谷川) 두 총독의 무단에 의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무단정치는 일시적으로는 민중의 반감을 사서 민심이 동요하였다. 그러나 죄악의 방지에는 도덕적인 훈계보다 법률적인 제재가 더 효과적인 것처럼, 일시적인 폭동에 대해서는 무단적 제압이 황도애 내포의 올바른 인식이었다. 따라서 황도애를 체현한 데라우치 총독의 무단정치는 단순한 무력으로 이들 무뢰한의 반대분자들을 박멸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한 모든 언론을 없애고 회사령(會社令)의 발포와 더불어 악랄한 일본자본가의 조선반도 진출을 견제하고, 이로써 요람기에 있는 조선 경제계의 치안을 보증한 것이다.

제2기 민족자결주의운동 시대

초기의 병합 반대운동이 인간성의 모순을 기초로 한 일시적인 동경에서 나온 데 반해, 민족자결주의 운동은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었다. 즉 제1차 세계대전의 산물인 “한 민족은 반드시 한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민족자결주의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운동은 이론적인 필연성을 갖고 있었다.

1917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만국(萬國)사회당대회 석상에서의 조선대표의 조선독립 요망, 상하이의 대한임시정부 및 폭력적 결사인 의열단, 니주바시(二重橋) 사건⁶⁰, 3·1만세 소요 등은 모두 민족자결의 실천적 운동 형식이었다.

물론 이 운동은 당시 전 세계를 풍미한 자유사상을 그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이론적 필연성을 갖고

60) 1924년 1월 5일 상해임시정부에서 파견된 김지섭(金祉燮)이 황거(皇居) 부근에 있는 다리인 니주바시에 폭탄을 던진 사건이다.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민족자결을 조선에 적용하는 것은 자결이라는 중개념(中概念)의 부당한 주연(周延)이라는 커다란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었다. 자결이 스스로 그 적용 범위의 한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당시의 조선은 자결의 매혹에 빠지면서도 자결의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조선의 자결운동은 모두 타국의 실천력에 의존하면서 성취하려고 하는, 허망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결하는 데 주저할 만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 자결은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었다. 이런 점이 자기모순적인 동시에 그 붕괴성이었다.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한 황도애의 대응책은 사이토 총독의 문치주의를 통해 올바르게 파악되었다. 전 대까지의 무단정치는 이러한 정세의 변천과 더불어 문치주의로 바뀌었고, 무단제도는 문관제도로, 헌병은 경찰로, 착검 대신 평상복으로 바뀌었다. 회사령은 철폐되었고 신문과 잡지의 허가로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이리하여 도도히 흐르는 자유주의에 떠밀리면서 귀의할 곳을 알지 못하는 조선의 민심에 내선융화(內鮮融和)의 안식처를 주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커다란 자기모순에 빠져 고민하고 있던 조선의 마음에 황도애의 광명을 던졌다. 물에 빠지는 자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하물며 그것이 영원한 구원선이라고 한다면, 당황하고 있던 민심이 이로써 점차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이다. 여기에 문치주의를 통해 파악된 황도애 내포의 현재성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엿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때 이미 국민협회(國民協會)의 민원식(閔元植), 대동동지회(大東同志會)의 선우순(鮮于鑞) 등 내선일체론의 열렬한 선각자들이 탄생하였다.

제3기 공산주의운동 시대

제1차 세계대전은 부산물로 민족자결주의 외에 “계급투쟁으로 종래의 구사회를 타파하고 신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를 인류에게 주었다. 이 운동은 조선에서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내지에서 이론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급격하게 진전되었다. 일본에서 일본공산당이 결성된 것은 1922년이고, 조선에서 조선공산당이 지하에 결성된 것은 1925년이었다. 그리고 양자는 이론과 실천 등 여러 방면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계속 갖고 있었다. 마침내 1927년에는 합법적 단체로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두 진영의 합동체인 신간회(新幹會) 및 여성들이 조직한 근우회(槿友會)가 탄생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의 공산운동은 일본의 운동과 함께 동시대의 생활권 특히 지식인층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이로써 운동으로서의 무시할 수 없는 실적을 올렸다. 즉 각종 형식을 취하며 구사회의 모든 각도에 마찰면을 갖고 있었다. 1929년 11월 광주에서 발단된 조선의 학생소요는 이 운동의 사회적 실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다. 관련 학교 194개교, 가맹 학생들 총수 5만 4000명에 달하였다. 사회의 실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소설·시가(詩歌)·연극·회화·조각 등을 통해 예술에 미술에 그 의장(意匠)을 치장한, 이른바 나프(NAPF)와 카프(KAPF)라 불리는 예술운동이다. 그 밖의 반정치적 운동인 테러행위는, 발생한 것과 음모에 그친 것 등 하나하나 전부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처럼 작열하던 공산주의운동도 1931년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몰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공산주의운동은 그것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체계의 근거로 삼고 헤겔의 변증법적 과정을 유물사관의 연역법으로 삼았다는 점에 이론으로서 긍정할 만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었고, 노동의 정신을 절대시하고 사유재산의 과잉을 배격한다는 점에서 실천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증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적용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함으로써 근원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즉 이를 곧바로 일본의 국체에 적용한다는 것은, 설령 당시의 일본이 자본론을 수용할 만한 많은 사회적 결함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진정으로 일본의 국체를 이해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저 일소에 부칠 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에서의 공산주의의 적용은 일본 국체가 지닌 황도애라는 간단한 사실을 통해 명료하게 반격할 수 있다. 많은 이론적 축적이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너무 간단한 반박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리는 언제나 간단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은 황도애로 태어났고, 황도애로 자라고, 황도애로 행하는 것이며, 이 지상(至上)이념인 황도애의 주체는 천황폐하라는 엄연한 사실이 존재하는 데 반해, 공산주의는 그 운동의 귀결로서 국체의 중심을 용인하지 않는다. 일본의 국체에 중심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황도애를 부인하는 것이고, 황도애를 부인한다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생활을 죽이는 것이다. 생활이 없는 곳에 공산주의는커녕 그 어떤 사상도 존재할 수 없다.

제4기 동요 · 모색 시대

이제 민족자결주의의 일시성을 알고, 이어서 공산주의운동의 불가능성을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황도애의 진정한 내포를 파악하지 못한 조선의 마음은 사상의 폭풍을 통과한 젖은 마음, 외로운 마음, 공허한 마음, 충족되지 않은 마음이었다. 마음의 공허는 마음의 동요를 가져오고, 마음의 동요는 그 반동으로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충족되지 않은 마음은 충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모색하는 마음이며, 충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모색하는 마음은, 경이로움이 학문의 원동력이었던 것처럼 진리를 향해 비약하는 태도였다.

이러한 정신적 공허를 대비하기 위해 황도애는 우선 물질적 충족, 나아가 물질적 충족에 따른 정신적 충족을 약속하였다. 이런 점에 우가키(宇垣) 총독의 농촌진흥운동이 그 의의를 갖는다. 즉 1931년 부임한 우가키 총독은 동요하는 마음에 경제적 안정을 주려고 했고, 모색하는 마음에 황도애 진전의 병참기지라는 목표를 주었다. 또 농지령을 폐지하고 남면북양(南綿北羊) 계획을 세웠으며, 수력전기에 의한 근대적 공업을 개발하고, 산금(産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점차 경제적 부유를 누리게 되었고, 이전까지는 일본 상품의 판매시장이자 일본에 대한 원료와 식료품의 공급시장이었던 조선이 경제적 식민지성에서 벗어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원료를 직접 가공 생산함으로써 일본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면서 해외시장으로 웅비하게 되었다. 경제적 방면에서 조선은 점차 그 식민지성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때 마침 만주사변이 발발하였다. 만주사변은 황도애에 의한 민족협화(民族協和)의 건설이고,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 100만 농민에 대한 애무이며, 백색인종에 대한 황색인종 전체의 자기평가의 양양이었다. 대륙의 신질서 건설은 고군무원(孤軍無援)을 통해 수행되었고, 제네바 국제연맹총회에서 42개국의 반대결의가 나온 결과 연맹탈퇴를 감행하고 세계성전의 예고를 각오한 것이다. 일본은 아름답고 일본

은 강하다는 감각은 경제적 안정으로 점차 평화를 회복하고 있던 조선의 마음에 확고한 침로(針路)를 보여주었다. 일본은 침략국가로서 증오하던 마음, 일본은 제국주의적 자본사회로서 혐오하던 마음이, 일본은 사랑의 선무체(宣撫體)이자 공존공영의 발상지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리하여 조선 지식층에서 이량(李亮)·김동한(金東漢)·최린(崔麟)·최남선(崔南善)·차재정(車載貞)·안준(安浚)·주련(朱鍊) 등 수 많은 전향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상으로 병합 이래 30년 동안 조선이 걸어온 사상의 길을 대략 소개하였다. 이로써 황도애가 어떠한 내포를 갖고 파악되었는지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과거 30년은 조선 사람들에게는 황도애를 향한 시련의 시기였고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고난의 과정이었으며, 황도애 입장에서 보자면 보편성 타당에 대한 요청이고 현재성 입증에 대한 노력이었다. 게다가 양자는 상즉불이(相即不離)의 역사적 인과율에 규약(規約)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육성된 조선은 당연히 도달할 곳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달할 곳이란 제5기에 해당하는 신일본건설운동 시대인데, 이는 조선의 현 단계에 속하는 문제이지 과거를 논한 본 절에 넣어서는 안 된다.

제4절 조선의 현재

조선의 현재는 신일본건설운동 시대를 향한 초기적 단계에 속하고, 그에 따른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체험하고 있는 시대이다.

급격한 국제적 변혁을 목도한 직후의 조선은 친구 질서의 격심한 마찰로 인해 형성된 사상의 폭풍을 직접 체험하면서 번민하고 지치고 목 놓아 울어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한 심경이었다. 스스로 그 삶을 충족시킬 현재를 발견하지 않고, 그저 과거의 환영을 꿈꾸면서 만신창이가 된 몸은 죽음의 절망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공허가 충족을 향한 전제이고 절망이 갱생을 향한 계단이라고 한다면, 30년간의 시련은 마침내 구원받게 될 절대적인 가능성을 약속하였다.

1936년 8월, 이와 같은 모색기에 부임한 미나미(南) 총독은 그것이 충족될 수 있는 공허이고 갱생될 수 있는 절망임을 인식하고 내선일체를 외침으로써 황도애의 올바른 내포를 파악하였다. 이 땅이 대륙의 병참기지라는 중책을 떠맡고 스스로 황도애 선포의 부분적 전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식민지성의 껍데기를 깨부수고 조선의 명성을 세계에 물었다. 내선일체를 근본 기조로 한 5대 정강(政綱), 즉 국제명징(國體明徵)·선만일여(鮮滿一如)·교학쇄신(敎學刷新)·농공병진(農工併進)·서정쇄신(庶政刷新)을 통해 안으로는 물심양면 실력적 진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조선에 대한 최악의 선입견을 계몽하였다. 물론 이러한 통치방침에 냉정한 비판을 가한다면, 지엽적인 수단·방법에 있어서 적지 않은 고통을 민중들에게 주고, 따라서 '소극적이다'라는 일부의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 그는 황도애 내포의 올바른 파악자로서 현 단계에서 신뢰할 만한 통치자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성·보편성·불변성·평등성인 바의 황도애의 본질적 내포를 그는 여실히 이 땅에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입증은 나는 그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내선일체는 서로 손을 잡는다든가 융화한다는 것과 같은, 그런 미적지근한 것이 아닙니다. 손을 잡는 자도 손을 놓으면 남이 됩니다. 물과 기름도 억지로 섞으면 융합한 형태를 띠게 되지만, 그 걸로는 안 됩니다. 형태도 마음도 피도 육체도 모두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1939년 5월 30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임원회 석상에서)

여기에 드러난 유기적 일체설은 조선에 내려주신 황도애가 몸속 깊이 **현재(現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래 내선일체의 이념은 지극히 고매하고 장엄한 것으로, 단지 조선반도에만 한정된 시설과 노력에 기대다고 하는 작은 범위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떤 나라든 일본인과 조선인이 살고 있는 곳에는 모두 내선일체의 취지가 철저히 관철되고 각지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효과를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동일)

여기서는 황도애가 내선일체에 나타는 공간적 보편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선일체를 심화시켜 조선반도 동포가 명실공히 황국신민의 실질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오늘날과 같은 정도로는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성전(聖戰)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아민족이 대단결함으로써 ‘동양인의 동양’을 건설하고, 동문동종(同文同種) 수억 민생의 복지증진과 문화흥융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건국의 정신인 팔괘일우(八紘一宇)의 구현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도상(途上)에 있어서, 만주와 일본의 관계, 혹은 일본과 중국의 관계 등 각 역사와 환경에 따라 그 양식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내선일체’의 현현(顯現)이야말로 우리의 숭고무비(崇高無比)란 황도원리의 구체화로써 다른 민족에 대한 도의적 수범(垂範)임을 실증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1938년, 시국대책조사회에서)

여기에 내선일체를 통해 황도애가 그 영겁 **불변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선일체의 최후는 일본과 조선의 무차별 평등에 도달해야 합니다.

(1939년 5월 30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임원회 석상에서)

황도애 **평등성**의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입각한 현현의 말이다.

이와 같이 황도애 내포의 올바른 인식자로서의 미나미 총독은 엄정한 의미에서 좋은 통치자이다. 민중 위에 서서 지도를 하고, 민중 속에 나아가며 관민일치를 행하고, 민중의 아래에 들어가 그 생활을 돕는다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상, 나쁜 통치자가 능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늘 민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민중과 친근해진다는 것이고, 민중에게 친근감을 주는 통치자이며, 나쁜 통치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조선이 구원받는 모습과 갱생되는 모습이 있다. 교육과 산업에 대한 미나미 총독의 헌신적인 노력은 중일사변을 계기로 황도애에 눈뜨고 있는 조선 민중의 핵심과 맞물려 내선일체의 이론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내선일체의 실질적 자력(資力)을 키워왔다. 그러나 내선일체라는 현 단계는 조선이 취해야 할 궁극 목적이 아니라, 황도애가 세계이념으로까지 나아갈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잠시 부여받은 임무이다. 내선일체에 놓여 있는 조선이 장래에 기대할 수 있는 문제 역시 여기에 있다.

이는 이른바 ‘조선의 장래’로서, 본 논의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는 황도애의 모든 진리성이 그 세계 선포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요체가 조선이며, 따라서 조선은 내선일체라는 현 단계에 어디까지나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에 관한 미나미 총독의 열의는 조선사회가 바라고 있던 마음의 반향을 얻어 서서히 그 사회적 보상을 받게 되었다. 국민총동원조선연맹 및 녹기연맹, 그 밖의 많은 사회적 단체가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거대한 사업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제5절 내선일체론

1. 내선일체론의 정의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이란 “일본, 즉 내지(內地)와 조선(朝鮮)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혼연일체가 되는 것에 관한 이론”이다. 미나미 총독이 말한 것처럼, 일본과 조선은 융화나 악수가 아니라 심신이 모두 일체가 되어야 한다. 일본과 조선의 장유(長幼)관계·형제관계·부부관계는 폐지되고, 일본 그 자체의 연장이 조선이며, 그런 포섭관계에서(엄밀한 의미에서는 포섭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조선은 일본의 부분인 동시에 그 전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선이 대륙병참기지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2. 내선일체론의 근원

내선일체론의 필연적인 근원, 즉 내선일체론을 산출한 모태는 우리 건국의 정신이다. 건국정신인 황도애는 그 본질적 속성으로서 공간으로의 무한 확충, 즉 객관적 보편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입을 조선이 일본과 일원화한다는 것은 진리의 결과로서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이 평등성은 일본과 조선의 일체관계가 평범한 정규적(定規的) 결합에 그치지 않고, 혼연한 유기적 일체가 될 것을 예고한다. 따라서 건국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내선일체를 논할 수는 없다.

3. 내선일체론의 이론적 근거

이처럼 건국의 정신을 그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내선일체론은 이론 자체로서 어떠한 학적(學的) 근거를 갖고 있을까? 바꾸어 말하자면 그것이 단지 숭고한 근원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론으로서의 필연성을 부여받을 수 없고, 그것이 이론인 이상 반드시 학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철학적 근거
- (2) 역사적 근거
- (3) 사회적 근거

(1) 철학적 근거

헤겔에 의해 완성된 변증법은 그것이 사상(事象)의 생성에 진전을 인정하고 사회의 유전(流轉)에 이상을 수립한 점에서 생성 설명의 철학적 방법으로서 긍정되어야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정·반·합의 필연성과 무한 진전성도 긍정될 수 있다고 본다.

내선일체론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고, 내선일체론은 학자의 단순한 착상이 아니다. 그리고 내선일체론의 철학적 근거에는 플라톤의 이데, 칸트의 물(物) 자체라는 유현(幽玄)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헤겔의 변증법을 차용한다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즉 정(正)의 황도애와 반(反)의 조선이 과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반(離反)과 결합을 보이면서도 마침내 정(正)⁶¹⁾의 내선일체에 도달한 것이다. 정·반·합의 진전형식이 진리의 궁극 이념으로까지 도달하는 동안 유구하게 정·반·합 → 정·반·합 → 정·반·합 등의 동일한 진전형식을 반복하는 것처럼, 황도에 역시 궁극 이념(세계의 중추이념)이 되기 위한 최초의 진전 과정에서 합(合)이라는 내선일체를 맺었다. 여기에 맺어진 합(내선일체)은 자연히 정(황도애)이 되고 나아가 반(중국대륙 같은)을 갖고, 그 투쟁을 거쳐 더욱 큰 합(동아권의 일원화)으로 나아간다. 여기에 내선일체의 필연성과 일시성이 학적 근거를 갖는다. 변증법이 생성을 설명하는 철학상의 방법론으로서 긍정된다고 한다면, 내선일체론 역시 잘못된 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역사적 근거

슬픈 일이긴 하지만, 조선 역사의 대부분이 외국에 예속된 역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신라의 당나라에 대한 조공, 고려의 송·요·금·원에 대한 조공, 이씨조선의 명·청에 대한 조공, 특히 말기의 러시아·중국·일본 등의 정치적 간섭은 모두 독립국가의 위엄을 갖추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중국과 조선의 관계에서 조선은 수많은 중국문화를 섭취하면서도 자신의 문화에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압축되어 있던 민족성이 늘 경제적 궁핍에 울고 있었는데 반해, 일본과 조선의 역사적 관계에서 조선의 민족성은 활달한 측면이 있었고, 그 문화 또한 생기를 띠고 있었다. 이는 중국이 언제나 침략적이고 그 교섭은 주종관계이었던 반면, 일본은 스진(崇神)천황이 임나(任那)를 구원한 이래 호의적이고 그 교섭은 우의관계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야마토(大和)와 조선 두 민족이 같은 우랄 알타이 계에 속한다는 인종학자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수많은 전설에 의해 저 먼 신대(神代) 때부터 두 민족의 혈액적 교류가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이후에도 상호 간에 다수의 귀화인이 있고 부단한 교류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61) 원문에는 정(正)으로 되어 있으나, 아마 합(合)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서는 일단 원문대로 두었다.

일본이 예부터 조선과 친한 관계에 있는 국가였다는 점, 아울러 양자의 피가 섞여 있다는 점의 역사적 고증은 양자의 일체화에 부동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 근거

민족자결주의와 공산주의는 조선에서 학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닌 자기모순성으로 인해 세계의 일부에 유폐되었다. 이를 대신해 오늘날 흥미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전체주의의 위용이다. 유폐된 앞의 두 가지도 후자로 전향하고 있다.

1929년의 세계적 경제공황은 구질서에 대한 새로운 반성을 촉구하였다. 즉 각 국은 미증유의 빈곤에 대비하기 위해 각자 자국의 산업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개척 시장을 서로 빼앗아 강대한 경제블록을 건설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경제블록은 국가적 제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숨어 있던 군소 국가들의 독립적 존재는 완전히 그 의의를 잃게 되었다. 경제를 통제하고 군비를 확장하고 인접 국가를 병탄하여 강대한 지역의 단일화를 도모하는 것은 제국주의라 불리며, 침략정책이라 불린 옛 오명을 대신해 생명 경쟁의 요체로서 전체주의에 부여된 커다란 명예가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전쟁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문화권과 경제권을 공유하는 군가군(群) 대 국가군의 전쟁이고, 주의(主義) 대 주의의 전쟁이며, 인종 대 인종의 전쟁일 것이다. 빈약한 경제권을 갖고 있고 편협한 지역에 틀어박혀 자유주의를 속삭이면서 상아의 탑을 고수하는 것은 18세기의 낭만이 아니라면 항간의 년센스에 지나지 않는다.

동아(東亞)의 일본은 중국 성전(聖戰)을 수행에 있어서, 대륙에 러시아의 배반과 바다를 건너 미국의 불손함을 본다. 물론 러시아의 배반과 미국의 불손함 등은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전란이 전체를 뒤덮고, 중국의 성전은 아직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그들에 대항해 일을 벌이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이익이 없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배반과 불손함이 경제상·군사상 많은 적극적 적성(敵性)을 띠고 다가올 때, 단순한 덕의(德義)라는 문제라며 뒷짐 지고 방관할 수는 없다. 일본이 직면한 이런 고난에 대해서 모든 국민의 지혜·용기·힘의 전체화를 요청하고 동아협동체의 확립을 외치고 있다. 따라서 동아협동체의 확립은 동아권 내의 각 국가들에 대한 국가적 권한의 침해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들 이색인종에 대한 동아 전체의 국방적 성새(城塞)의 구축이다. 아울러 공존공영을 동아 전체의 공통 목표로 삼고 있는 까닭에, 동아 신질서의 건설은 그 필요성과 함께 필연성을 갖고 있다. 즉 사회의 현 상황은 일본·만주·중국 블록의 강화를 요청하고, 이 요청은 대륙으로 가는 다리인 조선에 내지일원화(內地一元化)를 전제한다. 일본·만주·중국의 '일(日)'은 조선의 일체(一體)를 기해 비로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여기에 내선일체의 사회적 근거가 있으며, 동아 전체에 대한 중대한 역할이 있다.

4. 내선일체론의 실질적 근거

인간은 언제나 생활에 직면하고 있고 생활 자체가 가장 엄숙한 사실인 이상,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휘할 이론은 이론으로서의 학적 근거를 갖는 것 외에 그 실제성을 구유(具有)하고 있어야 한다. 내선일체론이 실질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일본과 만주, 일본과 중국의 협화 관계를 초월하여 혼연일체화로 표시되는 것은, 물론 조선이 정신적으로 일본화되었다는 데서도 기인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도 시정 13년의 역사는 그것이 문화적·경제적으로 대륙의 어떠한 부분보다도 뛰어나고, 일본의 일부분으로서의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문화의 기초인 교육 방면을 보자면, 1면(面) 1교(校)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초등학교 3,400, 취학 아동 140만 명(취학 아동의 약 45%)에 이르러, 의무교육제 실시의 토대를 만들고 중등학교와 고등전문 학교도 확장되었으며, 종합대학에 이공학부의 신설을 도모하는 등의 발전이 있었다. 각종 난관을 이겨 낸 창씨개명도 80% 이상의 좋은 성적을 올렸고, 지원병제도도 징병제도의 전제로서 무시할 수 없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경제 방면에서도 자본 및 상품의 이동은 일본과 조선 간에 아무런 장벽이 없고, 근래 일본 자본의 진출은 놀랄 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상품의 이동에 대해서 보더라도 일본의 총 수출 무역액 가운데 1938년도의 대(對) 조선 이출액(移出額)은 9억 2,100만 원(23.3%), 조선으로부터의 수입액(移入額)은 7억 1,000만 원(18.2%)이라는 방대한 수치를 보이면서 다른 모든 수이입망(輸移入網)을 능가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농·공업, 특히 광산 사업의 약진은 아래 통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의 실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쌀 수확고(단위 석(石))

	갱미(粳米)	나미(糯米)	육미(陸米)	합계
1910년	9,725,072	582,601	97,940	10,405,613
1928년	12,823,715	474,272	213,738	13,511,725
1929년	13,043,767	439,103	218,876	13,701,746
1930년	18,300,473	593,843	286,361	19,180,677
1931년	15,132,713	487,681	252,605	15,872,999
1932년	15,597,938	483,301	264,586	16,345,825
1933년	17,417,008	517,249	258,463	18,192,720
1934년	16,002,012	469,092	246,134	16,717,238
1935년	17,131,991	479,877	272,801	17,884,669
1936년	18,770,698	403,588	236,477	19,410,763
1937년	26,030,669	423,265	343,016	26,796,950

면화 수확고(단위 근(斤))

	육지 면	재래 면	합계
1910년	668,151	30,401,685	21,078,836
1928년	121,771,181	49,096,978	170,867,159
1929년	113,522,481	44,716,099	158,238,580
1930년	127,329,298	41,441,512	168,770,810
1931년	78,721,846	37,191,440	115,913,286
1932년	111,909,164	42,368,593	154,277,757

1933년	114,313,478	45,102,096	159,415,574
1934년	120,773,889	34,261,185	155,035,074
1935년	169,948,818	43,800,149	213,748,967
1936년	89,392,474	47,982,738	137,375,212
1937년	200,420,292	39,868,172	240,288,404

기타 농산물·보리·콩·잡곡·특용작물·채소·과일, 또는 잠견(蠶繭) 등 모두 통계적으로 보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산액(工産額) 통계를 보도록 하자.

단위 천 원	방적 공업	금속 공업	기계 기구 공업	요업 (窯業)	화학 공업	목제품 공업	인쇄 및 제본업	식료품 공업	가스 및 전기업	기타 공업	합계
1931년	32,924	6,545	7,928	9,034	42,599	4,779	8,787	80,995	16,128	43,197	252,924
1932년	47,196	6,231	8,313	9,839	49,555	5,021	9,675	104,259	11,069	59,674	310,836
1933년	55,327	9,108	7,513	11,141	70,519	5,978	9,549	122,729	10,986	64,381	367,235
1934년	67,751	9,660	9,481	12,472	91,150	7,271	11,237	137,670	12,831	78,834	438,401
1935년	82,327	26,988	11,525	17,563	147,834	8,243	12,744	169,420	39,803	91,026	607,476
1936년	99,477	32,735	13,503	21,876	195,430	9,936	13,133	199,883	39,988	103,842	730,806
1937년	141,154	50,766	16,565	25,072	304,948	11,737	16,304	238,033	40,076	114,653	959,308

농산액(農産額)의 누진에 비해 공산액의 1936년, 1937년도에 걸친 급격한 증진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광산액(鑛山額)을 살펴보자.

단위 원	금	은	동	철
1910년	3,744,957	6,555	-	-
1928년	5,533,719	59,645	1,027,319	7,652,924
1929년	5,848,720	59,820	1,348,686	6,795,334
1930년	6,207,644	58,207	1,398,225	5,923,071
1931년	9,008,572	206,600	224,921	4,588,887
1932년	17,809,438	552,714	307,027	4,114,012
1933년	26,066,784	721,651	417,368	5,605,691
1934년	33,214,914	1,466,079	933,032	7,722,088
1935년	38,320,921	2,558,130	1,535,797	7,332,318
1936년	49,909,775	2,830,135	3,272,926	7,866,613
1937년	-	-	-	-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순차적으로 증산하였고 기타 강철(鋼鐵)·연(鉛)·아비산(亞砒酸)·안티몬광(安質母尼鑛)·석탄(石炭)·운모(雲母)·고령토(高嶺土)·규사(珪砂)·팅스텐·납석(蠟

石)·형석(螢石)·마그네사이트·명반석(明礬石)·중정석(重晶石) 등 대체로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중요한 군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은 적확하게 예상되어, 본 총독부 당국의 적극적인 장려 계획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기술자 부족·기재 입수 곤란 등의 객관적 이유와 이권 전매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광업권자의 시국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1만 1000건의 수면(睡眠) 광구(그중에 40% 정도는 중요 광물)가 존재한다는 것은 단란한 오늘날 실로 중대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조선광업진흥회사의 창립과 당국 제3회 산금협의회(産金協議會)는 광업 신체제 수립에 큰 공헌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농산물·공업·광산에 있어서 전대에 비해 현격한 증진을 보이는 조선은 그 정신적 향상은 차치하더라도, 그 물적 조건에 있어서도 내지연장(內地延長)의 자격을 확보하게 되었다. 즉 오늘날 조선은 내선일체가 될 만한 실질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제3장 조선의 장래

이와 같은 소묘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확인한 조선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그 장래이다. 과거·현재가 현현(顯現)하는 역사적 사실인 데 반해, 미(未)현현 영역에 속하는 장래는 개연적인 추측으로 논할 수밖에 없다. 물론 당연히 그랬을 과거에서 마땅히 그러할 장래가 탄생한다는 인과율의 필연성은 인정되지만, 이 필연성은 사상(事象) 자체가 지닌 객관적인 필연성이고, 이를 인식할 인간적 주체는 늘 개연성으로 그 장래를 추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객관의 필연성과 인간의 인식 정도는 반드시 평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도 개연적인 추측이면서 객관적인 필연성을 전망하는 개연성으로서 만족한다.

조선의 장래에 관한 개연적 추측을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 (1) 내선일체 내의 장래 문제
- (2) 내선일체 후의 장래 문제

(1)은 내선일체라는 사실이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조선에 부여되어야 할 내선일체적 문제들이고, 1차적 단계에 속한다.

(2)는 내선일체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즉 조선이 완전히 일본과 일체가 되었을 때 조선에 부여되어야 할 신일본주의적인 문제들이고, 2차적 단계에 속한다.

제1절 내선일체 내의 장래 문제

내선일체는 그 필연적인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로서는 탄생의 고통을 체험하였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면 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이치이긴 하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 목이 말라도 물을 주어서는 안 되는 병적인 증상이 이례적으로 존재한다. 첫걸음을 내딛은 내선일체론은 이러한 수많은 병적 존재를 가졌다.

중일전쟁 발발 당시 수많은 아름다운 국민적 감격을 보여준 조선의 마음은 성전 3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그 흥분에서 깨어나 점차 꺼진 불이 되면서 도리어 더욱 악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물론 정면에서 내선일체를 반박하고 그 반대적 실천으로서의 지상(地上) 운동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선일체의 지도기관인 당국의 시정(施政)에 대하여 침묵의 반대를 계속하는 일부 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선일체를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지하(地下) 의식으로서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

최근 내선일체 실현의 부분적 형식으로서 이루어진 창씨개명·지원병제도·두 언문신문의 폐지(물론 여기에는 종이 부족이라는 이유도 있다) 등이 그 결과적 형식에 있어서는 의도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민중의 일부에 준 고통과 이 고통을 견뎌내는 침묵은, 그저 그들이 시대의식을 이해하지 못한 무죄한 행위라며 일축해버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침묵의 반대를 계속하는 그들의 가슴에는 '당국의 시정에 있어서의 말초적 동작은 너무 소극적이고 고압적이다'라는 뿌리 깊은 불평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현 상황에 있는 초기의 내선일체론은 당면 문제로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7가지 대책을 요구한다.

- (1) 불평분자의 적극적 향도(嚮導)
- (2) 잘못된 내선일체론의 극복
- (3) 의무교육 실시
- (4) 징병제도 실시
- (5) 정치 최고기관의 인재등용
- (6) 일본과 조선 간의 의식적 결혼
- (7) 전체주의와 내선일체론

1) 불평분자의 적극적 향도(嚮導)

내선일체를 거부하며 침묵하는 분자들은 대개 ① 경제적 지반이 있는 지식계급, ② 경제적 지반이 없는 지식계급이라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경제적 지반이 있는 지식계급

경제적으로 자족적인 지반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산지식계급으로, 그 표면적인 마찰 면에 있어서 일본인과의 직접적인 교섭은 없다. 따라서 일본인의 옹호가 없더라도 자신의 생활을 꾸릴 수 있다는, 단적인 안정에 둘러싸여 있는 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을 낙랑(樂浪)의 옛 도읍지에서 볼 수 있다.

최근 도시계획에 따른 평양부 안팎의 토지 가격의 폭등과 시세(時勢)의 변화에 따른 고무·양말 공업의 발전은 그들에게 눈부신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약간의 유산지식계급은 그 경제적 지반을 이용하여 학교 경영과 상점가, 특히 종교계에 고루한 민족주의적 아성을 쌓고 사사건건 무언의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평양부 내에 존재하는 60개의 교회(1939년 12월 현재) 중에서 32개가 장로교회이고, 이미 신사 불참배로 폐쇄된 산정현(山亭峴)교회를 필두로 뿌리 깊은 민족 감정적 결탁을 보이면

서 총 신도 1만 9785명(1939년 12월 현재) 중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장로교 신도들은 민족주의를 의식하건 하지 않건 간에 약간의 자본주의적 지도자에 의해 정신적으로 이끌리고 물질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보증 받고 있다.

평양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은 많다.

(2) 경제적 기반이 없는 지식계급

지식인으로 경제적 기반이 없는 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은 생활의 안정을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업자득의 인과성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함부로 사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 불평은 당국의 시정에 관해서는 무언의 반대, 무지한 민중에 대해서는 유형의 독화살이 된다. 그들은 하루하루의 순간적 생활을 주식시장에서의 외교나 토지매매의 중개, 혹은 금전대차(貸借) 소개 등으로 겨우 보장받고 있는데, 통제경제의 여파로 인한 주식시장의 불황, 토지매매의 부진, 금융 이동의 경색 등으로 인해 기존의 일시적 직업마저 시세(時世)의 흐름에 빼앗기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공직자가 되는 것을 최대의 수치로 보고 스스로 백이(伯夷)의 고사성어로 위안을 삼고 있다. 1937년 말 현재의 통계에 따르면 조선인 총수 2,168만 2,855명 중에서 39만 5,037명이 무직자로 나와 있다. 지식계급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계급에게 팽배한 불평을 침묵이라는 소극성을 띠고 있다고 해서, 또는 부분적이라는 소수라고 해서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당국의 방식은 소극적이다. 친절함이 부족하다”라는 그들 일부의 불평을 단순한 인식 부족의 목소리로서 위압적으로 봉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선량한 의사의 맑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지도기관의 적극성이고 그들에 대한 친절함이어야 한다. 물론 그들의 불평은 편협한 민족성에서도 기인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의 민족적 감정을 절대적으로 촉발하는 것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온한 일본인이다. 병합 이래 조선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조선인을 식민지인으로 대하는 일부 불온한 일본인들은 조선의 하층 민중을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속리속관(俗吏俗官)의 하수인과 함께, ‘기대하고 있는’ 조선의 마음에 최대의 환멸을 주었다. 환멸을 느낀 일부 민족 감정이야말로 황도애의 보편성, 내선 일체의 진리성을 이성적으로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그 보편성과 진리성에 직면하지 못하고 늘 그 주위를 방황케 한 최대 원인이다. 물론 이러한 불온한 무리들은 근래 당국과 민의(民意)의 부단한 노력으로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조선인을 ‘요보(ヨボ)’라고 부르는 경박한 무리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요보’란 조선어의 ‘여보’라는 호칭으로 불경한 표현이다. 존자(尊者)에게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 또 친한 사이라도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이 호칭으로 조선인 전체의 총칭적 대명사처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무지한 일부 일본인들은 이 표현 하나가 조선인의 마음에 기이한 느낌을 받게 하고, 기이한 느낌은 곧바로 친근감을 가질 수 없다는 불화의 감정을 유도한다는 미묘한 심리적 현상을 알지 못한다. 물론 조선인 측에도 경멸을 받을 만한 여러 행동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혜택받지 못한 환경과 확대받은 민족성으로 인한 것으로, 그들 자신의 일차적 죄가 아니다. 그것은 교도(敎導)받아야 할 행동이지 경멸받아야 할 죄악이 아니다. 게다가 이를 경멸하고 확대하는 일본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선진국에 태어난 커다란 행운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

표면상 이러한 불온한 무리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내심에 있어서도 불온한 마음가짐을 완전히 청산한 자는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내선일체 미완성의 최대 원인이 있다. 내선일체의 미완성이 황도애의 세계 선포를 방해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면, 자타 공히 자숙해야 할 것이다.

2) 잘못된 내선일체론의 극복

불온한 일본인과 함께 잘못된 내선일체론 또한 내선일체의 장애이다. 백지의 민중에게 “내선일체론 따위는 시시하다”라는 감정을 품게 하는 것이 잘못된 내선일체론이기 때문이다.

내선일체론은 황도애의 세계 선포에 있어서의 과정으로서 조선의 현 단계에 부여된 통치적 기본이념이고, 자유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사상적 조류가 아니다. 이를 마치 사상적 조류인 것처럼 오해하는 데서 여러 잘못된 내선일체론이 나타난다. 이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본말전도의 내선일체론
- ② 흉내 내는 내선일체론
- ③ 공리주의적 내선일체론

(1) 본말전도의 내선일체론

내선일체가 종종 말한 것처럼 건국정신의 과정으로서 필연적으로 탄생했다는 근거를 망각하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일본과 일원화하는 조선을 갖는 것이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를 발전시키는 한 원인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내선일체론이 있다. 결과론에서 보자면, 조선이 모든 방면에 있어서 일본화한다는 것이 일본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일본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조선이 곧바로 일본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론으로서 너무 빈약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조선이 일체화하고 일본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일체화의 결과이고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보상이지 일체화의 원인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체화함으로써 설령 이해타산을 따져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황도애의 보편성은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내선일체를 전제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황도애라는 원인대신 이익을 들고 왔다는 본말전도의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일본 측의 정치이론가들 사이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2) 흉내 내는 내선일체론

내선일체론은 미나미 총독이 제창한 것이지 미나미 총독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내선일체가 황도애의 내포로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 내선일체론의 창조주는 황도애 그 자체이다. 이 이론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선일체론이 미나미 총독에 의해 창조된 것처럼 착각하고, 미나미 총독의 치하에서 내선일체론을 시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리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때문에 미나미 총독이 물러나면 우리가 기댈 곳은 없어지고 우리의 내선일체론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웃음을 금치 못할 기우를 하는 이론이다. 다시 한 번 말하면, 내선일체론은 현 시세에 대응하는 황도애 내포의 올바른 인식으로서 필연적으로 현현하는 것이지, 한 통치자의 교체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 사명을 다했을 때 비로소 과정으로서의 자연적 소멸을 하게 된다. 문인계급 사이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3) 공리주의적 내선일체론

현대의 조선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선일체론을 준봉(遵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공리주의에서 출발한 허세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이 이론은 내선일체라는 개념과 현대의 생활이라는 개념을 연결한 점에서 긍정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현 단계에 부여된 현대의 생활 속에 내선일체 이외의 갖가지 처세술을 전제로 한 점에서 큰 모순을 범하고 있다. 즉 내선일체 그 자체가 조선의 현대 생활이고 조선의 현대 생활 그 자체가 내선일체이지, 내선일체 외에 현대의 생활은 절대 없다. 물론 이 이론은 조선에서만 타당한 것이고, 또 내선일체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이상, 올바른 논리이다. 따라서 내선일체는 공리주의적인 산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황도애의 진진 과정에서의 조선의 사명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내선일체론자는 관리·자산가·전향자 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3) 의무교육 실시

옛부터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으로 알려졌다. 예이라는 도덕적 형식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성현의 말에서 이를 배우고 몸에 익힌 것이다. 조선인은 배움과 이를 익히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다.

일전에 경성제국대학에서 열린 일본학술협회 제16회 대회 3일째에 발표된 도호쿠(東北)제국대학 후지와라 마쓰사부로(藤原松三郎) 교수의 조선 고대 산법(算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유럽 각 국에 앞선 12세기경(고려 순종왕 때)에 삼개(三開)·철술(綴術)·구장(九章) 등의 수학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조선민족이 배움을 추구하는 학도들이고 다재다능함을 증명한다.

역사적인 국운의 쇠퇴는 조선민족에게 뛰어난 문화를 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배움을 즐겨하고 연구심이 강하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다.

약진하는 조선은 오늘날 지방재정 문제, 학교 증축 자재난, 교원 부족, 개인적 부담력의 빈약 등의 이유로 아직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고, 취학 연령 아동의 60%가 국가교육 밖에 있다는 사실은 학문을 즐겨하는 민족성에서 보더라도 내선일체의 실력에서 보더라도 불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 통치 당국에서는 제2차 국민에 대한 일본정신의 부식(扶植)이 더 이상 옛 시대에 속하는 소극적 불평분자에 대한 계몽보다 더 적극적임을 인식하고, 의무교육 심사위원회 제도를 발족시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그 전제 실천으로서 1942년까지 2,068개교, 취학률 60%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신체제의 국책에 부합하기 위해 9월 4일자 총독부 훈령 제47호를 통해 발족된 조선 교육심의위원회 규정은 조선 교육에 관한 상의하달·하의상달의 신체제를 연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교육 신체제 아래 의무교육 실시에 노력하는 것-학문을 즐겨하는 민족에게 부여된 당면 문제 중 하나라고 본다.

4) 징병제도

군사상의 기밀을 알지 못하는 이상 조선의 징병제도를 운운하는 일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실시된 지원병제도는 징병제도의 전제로 볼 수 있고, 전제가 전제로서의 시기를 앞당겨 그 본론에

들어가는 것은 전제를 인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일반적인 요구이다.

조선의 어느 민족주의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전쟁영화를 보는 것이 가장 괴롭다. 총을 들고 당당하게 진군하는 호국의 병사들을 보고 있으면, 나 자신은 지켜야 할 국가가 없다는 슬픈 생각이 든다.

황도에는 내선일체를 유발하고 내선일체는 조선에 새로운 국가를 주었다. 그것은 임나를 구원한 일본도 아니고, 명나라 병사들을 조선에서 물리친 일본도 아니며, 이조 말기 삼국간섭에 참여한 일본도 아니다. 마침내 동아 대륙 자체를 세계 성전을 향한 병참기지로 만들어야 하는 보다 크고 보다 새로운 일본이다. 조선은 국가를 잃음으로써 국가를 얻었다. 갱생이라는 개념이 인간사회에서 진실성을 갖고 있는 이상, 조선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일본으로 갱생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일본은 구마소(熊襲)의 일본, 에조(蝦夷)의 일본, 아이누⁶²⁾의 일본, 류큐인(琉球人)⁶³⁾의 일본, 조선인의 일본인 것이다. 지켜야 할 국가가 없다는 것은 민족 관념에 사로잡힌 작은 착각이고, 조선은 올바르게 지켜야 할 국가를 부여받았다. 영화관의 막에 비친 병사들의 진군은 이윽고 그들 자신이 실연(實演)하게 된다. 게다가 영사(映寫)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데 반해, 그들 자신은 새로운 국가를 지키는 새로운 감격과 커다란 사회에 나아가는 큰 희열을 느낀다. 총과 검을 달라. 이는 새로운 국민에게 필연적인 명예일 것이다.

물론 징병제 실시에는 일반인들이 예측할 수 없는 갖가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난관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고, 징병은 국민에게 천명(天命)이다. 인간의 힘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 징병제가 하루라도 빨리 실시되기를 기도하면서 그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5) 정치 최고기관의 인재등용

우리는 제1장 제7절에서 황도애·정치기관·민중의 관계를 논하였다. 정치기관이란 황도애의 내포를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이를 민중에게 매개하는 기관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치기관만이 황도애 내포의 올바른 파악자이고 그 밖의 민중은 그것을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중 전체가 이를 파악해야 하고, 파악할 수 있는 민중 중에서 황도애의 주체에 의해 선택받은 자가 최고 정치기관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중은 모두 최고 정치기관과 관련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조선인 역시 최고 정치기관의 조직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인은 국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고 정치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가 숨어 있다. 그래서 신체제준비위원으로서 단 한 명의 조선인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23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지방으로서는 슬픈 일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성과 분발에 대한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래 조선인은 배움을 기뻐하고 연구심이 강하며, 천부적인 재능이 뛰어나다. 뛰어난 재능으로 능히 배우고 그 길을 깊이 연구하면 반드시 머지않은 시기에 직접 최고 정치기관에 참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선일체라는 이념에서 보건대 이미 약속받은 것이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하

62) 홋카이도(北海道)를 중심으로 사할린 등지에 거주하는 민족이다.

63) 옛 류큐왕국(琉球王國, 현 오키나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는 일이다.

6) 일본과 조선 간의 의식적 결혼

일본과 조선 간의 인간적 결혼은 그것이 단지 내선일체의 생리적 조직으로서 심대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대륙의 병참기지로서의 조선에 훗날의 우려를 근절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역사상 피의 교류는 매우 왕성하게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황도애의 사명 아래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니라, 또 시간적으로 단절되었고 공간적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신체제의 강화를 요구받고 있는 오늘날, 황도애 아래에 선 의식적인 결혼도 전체적인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륙의 신부가 요구되는 동시에, 조선으로의 신부 역시 화려한 치장을 하기를 바란다. 다행히 조선에도 조혼(早婚) 풍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서 평화로운 마을에는 좋은 여자아이들과 사내아이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나고 있다. 물론 풍속과 습관의 차이로 인해 가정을 꾸리는 데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겠지만, 요컨대 이는 극복될 수 있는 인간적인 어려움이고, 전체주의로 인식되고 있는 황도애의 내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선진국민이라는 우월감으로 이를 거부하는 분자가 존재한다면, 그는 국가의 대경(大經)을 잘못 이해하는 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한 이상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절실하고 구체적으로, 혹은 통제적으로 실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전체주의와 내선일체론

전체주의도 내선일체론도 그 근원에 있어서 동일한 기점에서 서 있다. 즉 둘 다 황도애 선포,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세계 신질서 수립의 준비 이론이다. 다만 전체주의가 국방국가의 확립, 국가적 통제경제의 확립, 동아신질서의 확립이라는 정치 이상(理想)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또 실천하는 데 반해, 내선일체론은 그러한 거국체제 확립에 부분적·지방적으로 참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차이는 내선일체론이 전체주의의 전제임을 의미한다. 즉 전체주의는 반드시 국민 전체의 총체적 일체화를 전제로 하고, 이런 전제 위에 모든 신체제적 강령이 수립된다. 때문에 전체주의의 대전제인 국민 전체는 국민으로서의 전적(全的) 성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속에 조선인 전체도 국민이 되어야 할 존재로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인 2,300만 명이 과연 국민으로서의 전적 성격을 발휘할 수 있을지, 발휘하려는 의욕이 있는지, 시코쿠(四國)·큐슈(九州)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에 신체제 수립을 강요하고 과연 만민익찬(萬民翼贊)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체주의의 커다란 의문이다. 이 의문의 해결은 내선일체를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 전체주의와 내선일체의 접촉면이 있다. 때문에 내선일체론은 조선의 전체주의적 신체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제이다. 내선일체 없이 신체제를 조선에 강요하는 것은 폭탄 없는 폭격기와 마찬가지로 년센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의 일차적인 문제는 내선일체이고, 내선일체가 향하는 곳은 전체주의이며, 전체주의가 향하는 곳은 황도애의 세계 선포라고 할 수 있다. 전체주의는 조선에 의해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 내선일체에 의해 여과되어야 한다. 조선은 신체제로 비약하기 전에 내선일체에 침잠해야 한다. 내선일체에 침잠하는 것이 신체제의 수립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고노에(近衛) 공(公)은 일본의 고노에 공이고, 미나미 총독은 조선의 미

나미 총독이다. 조선의 현 단계는 고노에 공 대신 미나미 총독을 욕망한다.

이상의 소박한 논리로 본 절을 마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 외에 경제적 실력을 충실히 하는 방책으로서 자원개발·농공증진·산금장려·군수 광산 개발 등 수많은 중대한 문제가 있지만, 이에 관해서는 당국의 예의주시하고 있는 바이고, 또 앞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본인이 알가알부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들은 요컨대 민중에게 미칠 최소한의 고통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조선 민중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그 문화를 황도권(皇道圈)에까지 가져간다는 것—이것이 관과 민에게 주어진 현재의 문제일 것이다.

제2절 내선일체 후의 장래 문제

내선일체가 완성된다는 것은 제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의 모든 인간성이 완전한 일본인이 된다는, 소범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인 이상 인간성은 반드시 결함을 갖고 있으며, 결함이 있는 한 인간성이 노력하여 다른 결함적 인간성이 된다고 한들, 거기에는 인간적인 아무런 향상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선일체의 완성이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양자 내의 사상(事象)이 그 핵심에 있어서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이다. 즉 조선의 문화권이 황도애의 문화권으로까지 양양되는 것이며, 그 결과 양자의 인간성이 황도애에 의해 통일되는 것이다. 이로써 비로소 대륙의 병참가지인 조선이 부여받은 모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내선일체가 이념으로서의 의의를 잃고 황도애 선포의 과정적 사명을 다하고, 스스로 직접적으로 황도애의 선포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 팔굉일우의 궁극 이상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조선이 황도애의 대상물이 아니라 스스로 황도애의 실천 익찬 분자일 수 있으며, 이는 황도애의 현재성, 내선일체의 필연성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절대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믿어도 좋다.

이와 같이 조선이 내선일체라는 현 단계를 통과한 다음 단계에서는 조선의 문제들은 일본의 지방적 문제로서 그 모습을 바꾼다. 조선은 조선에만 국한된 협의의 전체적 문제를 갖지 않고, 일본 전체의 문제가 늘 그대로 조선의 문제가 된다. 물론 현 단계에서도 일본 전체의 문제가 조선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조선이 지금까지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자체의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전체의 문제는 이차적·간접적인 형태로 취급되고 있었다. 완전한 지방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방에 부과된 문제는 전체적 문제의 부분적 문제이고, 오직 부분만 지닌 전체적 문제는 있을 수 없다. 그럴 경우 조선의 문제는 시코쿠의 문제이고, 큐슈의 문제이며, 식민지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때 대륙의 병참기지로써의 조선도 새로운 각도를 지닌다. 현 단계의 조선은 중국대륙을 전쟁터로 하는 병참 주요지에 대해 정신상·물질상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 및 병참기지를 조선에 갖는다는 군사적 유리함이 있기에 대륙병참기지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대륙병참기지 조선의 유일한 전제조건은 중국대륙이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이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조선은 일본의 완전한 부분이 됨으로써 반발-제휴-융화-일원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일본·만주·중국(동아) 관계의 매개적 연결을 하고, 일본·만주·중국 일체의 '일(日)'의 지방적 주체성을 갖게 된다. 일원화된 일

본·만주·중국 블록은 지금까지의 중국대륙이 단순한 전쟁터였다는 슬픈 운명을 극복하고 황도에 선포의 필연성과 백색인종의 이종적(異種的) 사상의 상극에 기인하는 미래의 세계 성전에 대비하기 위해 공존공영의 동아권, 즉 황색권의 완료체가 된다. 이 경우 미래의 성전에 임한다는 것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황색권 전체에 부여된 황도애의 숙명이다. 때문에 미래의 성전에서는 중국대륙의 현 전쟁터가 전 세계 어딘가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대륙이 전쟁터라는 현 단계적 사실 아래 그 의의를 갖고 있던 대륙병참기지 조선의 사명 또한 소멸하게 되고, 중국대륙의 병참 주요지는 세계의 전쟁터 어딘가로 이동되어 세계 병참기지가 되어야 한다. 이는 요컨대 현 단계의 대륙병참기지 조선이 다음 단계의 세계 병참기지 동아대륙으로 비약하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최대한의 과제가 있고, 일본화한 조선의 과제 역시 여기로 귀결된다. 즉 현 단계의 일본 전체의 모든 체제는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의 성전에 대비하는 총체적 준비가 되어야 한다. 탄생 중인 고노에 공의 신체제가 표면상 각종 다양한 지역적인 문제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 철학적 근원은 언제나 위와 같은 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미래의 세계 성전이라는 대담한 표현은 어쩌면 단순한 호전적 억측이라며 비난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그것이 억측에 그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필연성을 지닌 억측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미래 성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필연성이란 무엇인가?

- (1) 황도애의 보편성과 백색인종의 사상
- (2) 일본·만주·중국 블록에 의한 동아권(황색권)의 확립
- (3) 세계의 국제적 정세

(1) 황도애의 보편성과 백색인종의 사상

보편성은 불개입성과 양립하지 않는다. 황도애의 보편성은 무욕의 담백한 중립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한 자기 확충을 요구한다. 때문에 그 보편 과정에 있어서 황도애를 인식하지 못하는 각종 사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번 유럽의 전란에서 상극의 마찰면을 확충하고 있는 소련의 공산주의,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쇼, 미국의 자유주의 등은 결국에는 황도애를 만드는 신일본주의와 모종의 형식으로 리그전 같은 교섭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교섭은 그간의 성전에서 볼 수 있었던 '신질서'와 '구질서'의 쟁탈관계가 아니라 '필연성'과 '개연성'의 상극관계로 나타난다. 황도애의 본질이 필연인 데 반해, 그들의 사상은 그 보편성을 결여한 점에서 개연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연은 필연을 앞에 두고 반드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미래의 성전 또한 이 개연의 자폭적 붕괴에 다름 아니다.

(2) 일본·만주·중국 블록에 의한 동아권(황색권)의 확립

현재 일본과 만주의 관계는 융화의 과정을 걷고 있고, 성전 3주년을 맞이한 일본과 중국의 관계도 올해 9월 28일부로 아베(阿部) 전권대사와 왕(汪) 행정원장과의 일·중 국교조정 제15차 회의를 종료하고 선린우호·공동방위·경제제휴라는 3원칙에 입각한 양국 간의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우의적 국교를 타결하였다.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일본·만주·중국 육해군의 연락·운반 단일화는 일·

만·중의 일체적 연결을 확보하기 위해 여기에 일·만·중 블록의 강고한 기초가 구축되면서 공존공영을 실질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동아권 전체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황도애가 이윽고 세계의 중추 이념이 될 수밖에 없는 올바른 내포를 현 단계에서 파악한 것이며, 행사할 수 있는 권위, 싸울 수 있는 힘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방대한 국방국가의 확립이 신무불살(神武不殺)의 전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세계의 국제적 정세

오스트리아·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 등 8개국의 국가적 붕괴를 강요하고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한 북구 공동체를 외치는 독일은 나치스를 주체로 한 전체적 파쇼를 통해 우방 이탈리아와 제휴하면서 방대한 지역에 걸친 블록 경제권을 수립하려고 한다. 구질서에 대한 신질서라는 이름으로 설정되고 있는 대경제 블록 획득에 대한 열기는 세계의 현 단계를 유도하는 가장 절실한 이념이 되고 있다.

공산주의 소련도 독일 못지않게 이미 방대한 자국령(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트 연안을 병탄하였고, 폴란드와 그 밖의 이권을 확보하고 멀리 발칸 반도에까지 그 속원을 실현하려고 한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은 자국 내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에 구축함을 양도한 것을 계기로 유럽전쟁 불개입 정책의 자멸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열강은 그 경제 블록 획득을 위해 모든 도덕성을 무시하고 참으로 위험·미묘한 국제적 정세를 드러내고 있다. 어디까지나 도덕성을 그 본질로 삼고 있는 황도애적 신일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배치하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일·독 방공협정을 체결한 독일이 순식간에 독·소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독·소 불가침조약에 영합한 소련은 전란이 일어났을 때 어부지리를 바라면서 노몬한(Nomonhan)의 공중전을 시작으로, 표면상 일본에 대한 교의(交誼)를 표명하고, 주의상(主義上)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국에 친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동아·유럽의 전란에 직접적으로 교섭하지 않았고, 오랜 침묵 뒤에 전란의 피폐에 의해 양성될 터인 다음 단계의 세계에서 공산주의로 세계적 신질서를 수립하려는 원대한 음모를 숨기고 있다.

소련에 친선을 보이는 미국은 독일에 대한 적성(敵性)을 의심 받으면서, 한편으로 코코스 군도·에콰도르령 가라파고스 군도에 태평양 신기지 건설을 희망하고, 이로써 일본에 대한 도전적 준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츠 스탈링은 그의 저서 『일·미 전쟁 예상』에서 프랑스령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령 동인도 문제의 악화는 반드시 일본과 미국의 전쟁을 야기할 것이고, 일본과 미국이 만약 싸운다면 양자의 전함 세력은 거의 차이가 없겠지만, 일본의 강점은 미국에 비해 우수한 기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신기지 요망의 적극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프랑스령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지리적·인종적·경제적으로 동아공영권의 일환임은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극동정책에 있어서 이곳에 관한 적극적 관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영국과 미국은 약탈적 경제기구의 제압을 계속하는 한 일본과의 최악의 장면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바야시(小林)상공성 장관의 네덜란드령 동인도 특파 사명은 단순한 가솔린 획득이라는 눈앞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동아권 전체의 위엄 확보라는 중대하고도 큰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사다난한 국제정세에 직면한 일본은 정치적으로 ‘고노에 신체제’로 이에 대응하려 한다. 2년 전 고노에 내각 당시 국민 재편성 또는 국민 재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종류의 신정치사상이 실현을 요망했을 때는 단순한 분위기로 간주되어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2년 뒤 오늘날에는 기정 정당(基定政黨)이 자진해서 해당을 결정하고 우국(憂國)의 국민이 모두 이를 대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노에 신체제 탄생의 근원은 2년이 흐른 ‘오늘날의 정세’에 있다. ‘오늘날의 정세’는 ‘민중의 목소리’가 되었고, ‘민중의 올바른 목소리’는 바로 황도애의 파악에 있다. 황도애는 신정치체제의 철학적 근거인 동시에, 이에 절대적인 필연성을 부여한다. 이 철학적 근거를 인식하지 않는 한, 상의하달·하의상달·만민익찬을 둘러싼 모든 강령도, 세계관의 수립·국가관의 수립·일본신민도(臣民道)의 수립 등의 신윤리관도, 국방국가의 확립·국가적 통제경제의 확립·동아신질서의 확립이라는 거국체제의 인과율도 모두 그 의의를 잃게 된다. 일본의 신체제가 히틀러·무솔리니·스탈린 등의 전제적 전체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신체제는 황도애를 기초로 한 신일본주의의 현 단계적 정치체에 다른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국민에게 인기가 있는 고노에 공의 인간적 존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점에서는 황도애 진전의 필연적 과정으로서 세계의 정세에 대응할 국가적 진로로서 반드시 이런 종류의 전체주의적 신정치체제가 누군가에 의해 제창되었을 것이다. 국민은 모두 황도애의 올바른 인식자가 되어야 한다면, 황도애 내포의 올바른 인식체인 신체제는 국민의 목소리·민중의 목소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스에쓰구(末次) 대장이 말하는 것처럼, 신체제 조직이 과연 메이지유신 이상의 정치적 혁신인지 아닌지, 거국체제의 주형(鑄型)이 하늘의 목소리를 영혼으로서 담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장래이며, 이 장래의 비약에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부여된 임무일 것이다.

전체주의적 신체제와 내선일체론의 접촉면은 앞서 언급하였다. 일본의 신체제가 그대로 조선의 신체제일 수 있다는 것, 일본의 신체제가 조선의 2,300만에게도 그대로 민중의 목소리일 수 있다는 것—이를 성취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있음을 믿고 있다.

(끝)

〈출전 : 星野相河(舊名 裴相河), 『肇國の精神と朝鮮の將來(下)』, 『綠旗』 第5卷 12號
綠旗聯盟, 1940년 12월, 2~29쪽〉

2) 내선일체와 신체제

성야상하(星野相河, 호시노)

1.

신체제는 정책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선일체 역시 정책일 수 없다. 전자가 국민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후자는 국가의 마음이다. 그것이 국민이 지닌 각 기구의 재편성인 것처럼, 이는 민족과 민족

의 어쩔 수 없는 재조직일 수밖에 없다. 재편성·재조직의 목표가 무엇보다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이념과 결부되는 한 양자 모두 그 근원이 같고, 따라서 일부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팔굉일우의 이념은 필연적이고 역사적으로 그 궁극을 향해 자연히 전진을 계속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정책의 편리만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신체제나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 밖의 정책적 가치를 폄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밝혔을 뿐이다.

오늘날 신체제적 정치사상이 3년 전의 국민재편성 또는 재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다. 사이고 다카모리(西鄉隆盛)⁶⁴가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했을 때에는 큰 희생을 치루면서도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신체제는 가령 고노에(近衛) 공⁶⁵을 차치하더라도, 당당한 국민의 보무를 결성하기 위해 일한합병 이후의 내선일체는 인과적인 역사상의 결론으로서 명확하게 부각되었다.

3년 전 국민재편성이,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이 단순히 소수 정치사상가가 제창한 일개 정책에 지나지 않았는데 반해, 오늘날의 신체제는, 오늘날의 내선일체는 국민의 목소리이고 국가의 마음이며 팔굉일우가 내포하고 있는 바이다.

신체제를 정책인 것처럼 오해함으로써 신체제에 수반한 모든 고통이 고통 그 자체로서 심각해지는 것이며, 내선일체를 정책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임으로써 일본과 조선 간의 모든 간극이 파헤쳐질 것이다. 양자 모두 결코 공리주의적인 정책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궁극 목표로 한 팔굉일우 행진곡의 일부분으로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현재의 고통이 미래를 비추는 서광에 의해 위무될 것이며, 일본과 조선 간의 각종 간극이 유기적인 결합으로 서로 용해될 것이다.

신체제도 내선일체도 나아가야 할 길은 가시밭길이며, 지양될 시기는 전도 요원하다. 가시밭길도 천 리 길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에 즐거운 여정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란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평화이며, 팔굉일우의 신약(神約)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 점에 입각해서 비로소 신체제·내선일체가 모두 그 존재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물론 팔굉일우의 추진에는 각종 지엽적인 정책들이 수단으로서 임기응변 방편으로서 채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신체제나 내선일체는 이러한 각종 정책들의 기초적 이념일 수는 있어도 정책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은 정치가의 방편이고 신체제 및 내선일체는 정책의 모태이기 때문이다.

2.

이상으로 신체제와 내선일체를 함께 병기했다. 그것이 팔굉일우 이념의 과정적 부분으로서의 근원을 지닌다는 점에서 같은 뿌리에 속하는 것이며, 작금의 정세에 입각해 가장 실천적인 철학성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팔굉일우라는 같은 근거에 입각해서 비로소 그 존재의의를 인정받는 신체제 및 내선일체

64) 사이고 다카모리(西鄉隆盛, 1828~1877) : 메이지유신의 '3걸'이라 불리는 정치가. 1873년 정한론에 관한 정변으로 하야한 뒤 고향으로 돌아갔다. 1877년 세이난전쟁(西南戰爭)에서 패한 뒤 자살.

65)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1891~1945) : 일본의 정치가. 전후(戰後) 전범으로 지목을 받고 음독자살.

는 팔굉일우의 추진에서 서로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나는 신체제나 내선일체의 이론적 해설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많은 이론가들이 움직일 수 없는 이론과 실행할 수 밖에 없는 실천을 규격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격화된 양자의 상관관계 역시 어느 정도까지 결정적인 것으로서 발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정도까지 결정적인 것으로서 발표된 양자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결정적인 것으로서 수용될 수 있는지, 나는 이를 재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양자의 상관관계를 다음의 세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병행관계
- 2) 종속관계
- 3) 인과관계

첫 번째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의 병행관계이다. 신체제와 내선일체는 서로 병행하고 서로 도우면서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신체제는 신체제의 길을 걷고 내선일체는 내선일체의 길을 걸으면서 양자의 접촉면에서 모든 반발·당착(撞着)을 거부하고 오로지 제휴·원조 형태를 취하는 2인3각의 모습이다. 물론 양자의 상호 원조를 인정함으로써 마치 정당한 이론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병행되어서는 안 될 양자의 이념을 병행적으로 전제했다는 점에 큰 모순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그 본질상 신체제는 국민으로서의 국민을 전제로 하고, 내선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할 국민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을 달리하는 두 이념을 병렬적으로 서로 관련시키는 것은 마치 인간과 토끼의 2인3각을 조합하는 것처럼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전자는 완성된 국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국민은 모두 국가의 기쁨을 기뻐하고, 국가의 슬픔을 슬퍼하고, 국가의 권리를 자기 자신의 권리로서 구사하는 동시에 국가의 의무를 자기 자신의 의무로서 짊어지는 데 반해, 후자는 이윽고 그렇게 되어야 할 국민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 국민의 현재는 국가의 비애를 초월하고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등한시하는 수많은 이단적 분자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신체제도 내선일체도 모두 특수 개인의 지도 이념이 아니라 만민 모두 주야로 실천하기 위해 요구한 길이다. 국가의 경륜(經綸)인 동시에 국민 전체의 요망이고, 또 국민 각 개인의 생활이념이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대한 것은 신체제가 전제하는 국민들 중에 사이비적인 국민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본인들 중에도 다소는 있겠지만, ‘반도인(半島人)’⁶⁶⁾ 2,300만 대다수가 외형적인 국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류의 압력으로 신체제에 끌려 다니고 내선일체에 내몰리면서 마치 금붕어도 물도 없는 어항 같이 너무나 내용 없는 국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체제는 국민의 목소리였다. 따라서 신체제는 진심으로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완전한 국민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반도의 현실은 (물론 시정 30년 이래의 장족의 발전을 했다는 실적은 인정되지만) 이 말에 부합하는 것일까. 반도의 국민이 모두 스스로 신체제를 기뻐하고 신체제에 완전히 올라타 신구의 교체에 따른 각종 고통을 어른스러운 관용으로 인내할 수 있을까. 각 가정마다 국기를 게양하고

66) 조선인.

입으로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를 외치지만, 과연 그들의 마음에 ‘히노마루(日の丸)’⁶⁷⁾의 국가가 존재하고 그들의 마음에 맹세해야 할 신이 깃들어 있을까.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을 ‘국민’으로서 전제하는 것은 기관이 고장 난 기관차와 마찬가지로, 맥진(驀進)하는 신체제에 대한 최대 위협이 아닐까. 내용 없는 국민에게 국민으로서의 내용을 갖게 하는 것, 외형적인 국민을 진심어린 국민으로 만드는 것—여기에 내선일체의 당면 과제가 있다. 이와 동시에 이 점에 비추어 내선일체와 신체제의 상관관계 또한 규정될 수 있다. 양자 모두 그 근본 요소는 국민이다. 하나는 완성된 국민을 전제로 하고 다른 하나는 미완성 국민을 전제한다. 이 두 이념이 병행할 수 없음은 이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양자의 종속관계이다. 신체제를 주(主)로 보고 내선일체를 종(從)으로 보면서 양자의 종속관계에서 관계성을 찾으려는 것은 마치 내의를 입지 않고 외투를 걸치는 것 같은 공허한 견해이다. 왜냐하면 종속관계에서의 종이라는 개념은 주라는 개념에 의해 비로소 자신의 존재이유를 갖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내선일체라는 이념은 신체제라는 이념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존재의 근거를 갖는다는 논리이다. 이에 반해 사실 내선일체는 신체제의 발족 이전에 이미 독자적으로 존재한 것이고, 전체주의 시기에도 자유주의 시기에도 그러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존재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체제도 내선일체도 모두 나아가야 할 목표는 같으며 그 근원이 같다. 목표와 근원은 팔굉일우의 최고이념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선일체는 팔굉일우가 변경되지 않는 한 신구체제의 교체에 의해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며, 게다가 내선일체를 신체제에 종속시키고 포괄시키는 것은 내선일체의 필연성을 무시한 엄청난 모독일 것이다.

세 번째로 양자의 올바른 관계는 그 인과관계에서 도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제는 완성된 국민(내면적으로 국민일 수 있는 국민)을 전제로 하고, 내선일체는 완성되어야 할 국민을 당면 목표로 한다. 미완성 국민에게 신체제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이 없는 곳에 국민의 총력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를 생성시키려는 이전 세대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하긴 꿈은 꿈이라는 한도 내에서 현실적인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꿈은 반드시 깨어날 수밖에 없고, 현재 형식적으로 신체제로 내몰리고 있는 비국민적 국민이 내용에서는 이에 따른 새로운 고통을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이런 현실이 과연 신체제를 향한 영구적인 추진력이 될 수 있겠는가. 고통은 언젠가 찾아올 행복을 약속할 때 비로소 견뎌낼 수 있다. 이 약속을 스스로 의식하는 자가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신체제는 늘 내선일체에서 기인되어야 한다. 내선일체가 찾아오지 않는 한 신체제는 무의미하다. 필자가 논문 「조국(肇國)의 정신과 조선의 장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제는 내선일체를 원인으로 삼고, 이를 일차적인 것으로 하고 여기에 중점을 두으로써 비로소 인과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으며, 그렇지 않는 한 그저 형식적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67) 일본 국기.

3.

그러나 고도국방국가를 당면 목표로 하는 신체제는 내외의 정세를 고려하면 초미의 급선무이다. 언제까지 내선일체의 완성을 기다리는 유구함을 가질 수 없다. 여기에 신체제와 내선일체의 긴밀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상관(相關)·상조(相助)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동시에, 자칫하면 양자의 관계를 평행 혹은 종속과 결부시키는 조급한 오류를 범하기 쉽다. 요는 양자의 관계에서 중점을 내선일체에 두고 그 인과율적인 필연성을 자각하는 일이다. 양자가 동시에 실천되고 아무런 장애도 없이 양자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항상 동일하게 결승점으로 귀일한다. 문제는 양자의 관계의 인과율을 깨달을 수 있는가 아닌가에 있다.

신체제는 당면 목표인 고도국방국가의 실현을 완수했을 때, 팔굉일우의 대이념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팔굉일우는 영원한 평화이고 영원한 평화가 존재하는 곳에 국가의 국방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선일체가 완성되고 팔굉일우의 대이념에 의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지양된다. 팔굉일우는 세계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전체가 일체일 때 일본·조선처럼 부분적인 일체는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한합병 이후 30년 이래 내선일체는 큰 노력에 의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특히 '일지사변(日支事變)⁶⁸⁾을 계기로 내선일체는 그 필연적인 역사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에서도 수많은 불평분자들이 있다. 지식계급의 의식적 불평, 무식계급의 무의식적 불평이 있다. 양자의 불평을 통해 그 근본 이유가 된 것은 자각이든 혹은 타인으로부터의 주입된 지혜든 간에 내선일체가 형식에 그치고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선일체가 구호만 있을 뿐, 피와 살이 없다는 것이다. 내선일체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인간생활 부분에서 관념이지 실천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선일체는 정책이지 도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의 응고는 내선일체의 필연성을 외형적인 무궤도의 우발성으로 간주해버린다. 외부 세계에 눈을 감고 상아의 탑에 틀어박히는 것을 최고의 현명한 방책이라고 생각하는 반도 지식인도, 작은 땅덩어리를 경작하고 내일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농민도, 나아가 도심에 뛰쳐나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시세의 사람도, 모두 갖고 있는 큰 고민은 “내선일체가 내용을 가져야 한다”, “신체제가 고통을 주면서도 보다 큰 기쁨을 약속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고민에 대한 의료 처방은 “내선일체에 내용을 담는 것”, “신체제가 약속하는 큰 기쁨을 스스로 의식하는 것”이다. 사물은 마땅히 주어져야 하기에 주어지는 것이고, 내용은 마땅히 담겨져야 하기에 담겨진다. 담겨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노력하게끔 하는 것. -신체제의 고통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젠가 찾아올 행복의 전제임을 스스로 의식하고 의식하게끔 하는 것-내선일체의 내용화는 신체제의 중점이라는 것, 중점이게끔 하는 것-이것이 당면 숙제이다.

(녹기 일본문화연구소원)

〈출전 : 星野相河, 「內鮮一體と新體制」, 『綠旗』第6卷 29號 綠旗聯盟, 1941년 2월, 40~44쪽〉

68) 중일전쟁.

3) 일본어의 철학 - 왜 인류는 일본어를 사용하게 될까

성야상하(星野相河, 호시노)

1.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란 생물의 음성 발상, 특히 인류의 음성 발상이다”라는 것이 언어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라고 한다.(여기서는 특히 인류의 음성 발상에 한정해서 언어를 다룬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는 사회적 제약에 지배를 받는다. 그 사회적 환경 내에서 형식으로서의 음성 개념(음운)과 내용으로서의 사물 관념(의의)이 연합됨으로써 비로소 사회의 현상들을 표현하는 언어 관념이 탄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언어학자의 일반론은 일단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물론 인간의 언어는 그 인간이 속한 사회적 제약에 지배를 받으면서 성립하고, 성립한 이후에도 사회적 환경 내의 현상들을 표현하거나 또 그 영향을 받아 스스로 변천·발달하는 것이 동시에, 때로는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훨씬 뛰어넘어 무한한 실재(진리) 세계로 비상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의 언어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의 표현이라든가 인간들끼리의 의지 교환이라는 것 이외에, 인간의 영혼이 실재(진리) 세계와 속삭이는 강렬한 무전이기도 하다. 만약 인간의 언어가 단순한 형이하학적 사명만 갖고 있다면 인간의 언어와 다른 생물의 음성 발상과는 물론 복잡과 간단한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셈이 된다. 인간이 다른 생물과 다른 까닭은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가 다른 생물의 음성 발상과 다른 까닭은 사실 인간의 언어야말로 비로소 주관적 이성과 객관적 실재(진리)의 매개체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연상되는 언어는 사회적 제약 속에서 탄생한 실제어이긴 하지만, 닭이 달걀에서 나왔으면서도 달걀 그 자체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사회적 제약을 이탈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언어는 형이하학적인 것인 동시에 형이상학적인 사명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제약 속에서 탄생한 동시에 사회적 제약의 규범에서 이탈한다. 이는 중대한 세계사적 결론을 예언한다. 즉 유구한 옛날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서로 다른 언어가 탄생해서 변화하며 발달했다. 각 언어들이 이윽고 그 사회적 환경을 이탈해서 단일한 언어로 통일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언어학자의 분류에 따르면, 현재 인도 게르만어족, 썸·햄족, 우랄알타이어족, 중국어족, 남양어, 아메리카 인디언어족, 아프리카어군, 오스트레일리아어, 드라비다어족, 극북어군(極北語群) 등 약 10개의 어족(語族)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에서 또 50여 종 정도의 각국어로 구별된다. 각국어 내의 방언 등을 자세히 분류하면 사회적 환경에 의한 언어의 분열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인류의 언어가 가까운 장래에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실재 진실의 진리를 세계에 비출 때 어떠한 영향을 입게 될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이성을 갖고 이 이성과 실재(진리)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상과 실재(진리)의 교류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는 강렬한 요구이다. 이 본성적 요구가 이윽고 절대적인 실재(진리)를 발견했을 때, 이 실재(진리)와 속삭이는 데 가장 적합한 하나의 언어를 요구하지는 않을까. 실재(진리)는 하나이며, 이 실재(진리)를 표현

하는 언어도 본래 하나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서로 다른 언어속에 속해 있던 수많은 인간들의 이성이 이 경우 사회적 환경에서 사용하고 익숙하던 각자의 언어 외에 실재(진리)와 대화를 나누는 가장 적합한 하나의 언어를 요구하고 익히는 데 노력하지는 않을까. 이는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숙명적인 욕구가 아닐까. 바꾸어 말하자면 생각하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요구가 아닐까. 이리하여 인류는 각자의 언어 외에 이성과 실재(진리)의 교류어로서, 세계어로서 하나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공용어로서 각자의 이성을 통일하는 데까지 이끄는 영혼의 속삭임을 계속 요구한다. 이는 27세기의 인류언어의 역사적 귀결이라 믿는다. 이와 같은 이론은 어쩌면 지나친 독단론이고 세계의 각종 사회의 실정을 망각한 이론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각종 사회적 환경도 요컨대 실재(진리)를 요구하고 있던 인류의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것이지, 사회적 환경 그 자체가 결코 실재(진리)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 파생적 존재임을 깨달을 때 이러한 예언은 신념과 근거를 갖고 뒷받침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잠정적이다. 묘지로, 그리고 묘지를 둘러싼 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설령 인간이 1만 년, 10만 년을 산다 하더라도 영겁의 자연 앞에서는 무(無)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잠정적인 숙명을 짊어지고 인간은 번민하고 요구하고 저항했다. 인간의 모든 생활은 잠정적인 생명을 무한과 결부시키려는 노력의 표현이다. 잠정적인 숙명에 억눌리면서도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채찍질하며 무한·실재·진리를 향해 끝없는 추모(追慕)를 품어왔다. 영혼과 무한의 교류는 이러한 본질적인 요구에서 비롯된다. 잠정적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환경 역시 잠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잠정적인 사회적 환경의 산물인 언어 역시 잠정적이라는 데 인간은 두려워했다. 다만 이러한 두려움이 강렬한 사회적 제약의 영향에 의해 대부분의 인간은 의식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영혼이 실재(진리)에 호소하는 유일한 매개는 언어이고, 이러한 언어가 잠정적이라는 것은 견고한 무한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사용하는 언어가 사회적 제약에서 생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이 무한을 사모한다는 의미에서 그 언어 또한 무한과 함께 무한하기를 바란다. 예언된 세계어의 출현은 이러한 필연적인 근거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어란 어떤 언어일까? 영혼이 무한에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언어는 지상의 어떤 국어일까? 이러한 국어로 호소하기 위한 무한·실재·진리란 무엇이고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2. 언어, 문화, 실재

언어는 인간의 일상에서 상호 의사를 전달하는 평범한 도구인 동시에 영혼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무한의 실재와 서로 속삭이는 경우 가장 장중한 표현이 될 수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존재하고 있는 실재, 즉 진리는 고금을 통틀어 어떠한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로 잘 정돈된 개념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개념은 언어를 통해 비로소 형식화된다. 이 표현이 인간의 세계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자태를 갖고 머물 때, 우리는 이를 문화라 부른다. 즉 문화는 실재(진리)를 탐구하는 인간 노력의 과정적 산물이든가, 아니면 실재가 현현(顯現)하는 편린에 지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언어가 실재 그 자체가 아닌 것처럼, 문화 또한 실재 그 자체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와 문화는 실재에 대해 평등한 지위에 놓인다. 바꾸어 말하자면 언어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인 동시에 다른 모든 문화를 낳는 데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산과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언어만이 제반 문화를 만드는 유일무이의 모태는 아니지만, 그것은 어떠한 문화에도 들어가 있는 강인한 조직 원료임에 분명하다. 직접적인 언어의 표현에 의한 시가(詩歌)·극·지리·역사를 비롯한 그 밖의 제반 학문은 물론이거니와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기계·조각·건축 등의 입체적인 문화 산물도 그러한 것들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언어가 필요조건으로서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벽화·불사(佛社)·폐허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언어적 표현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벽화나 불사 뒤에, 폐허가 폐허로 변하기 전의 모습에 수많은 언어가 이야기되고 기록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언어는 자기 자신 독립된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밖의 모든 문화에 대한 강렬한 침윤성을 갖게 된다. 문화의 향기는 거기에 스며들어난 언어적 향기의 여운을 제거할 수는 없다. 문화는 그 언어를 사용한 민족의 민족성을 상징하고, 그 언어를 사용한 민족의 생활을 역사에 기록한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문화도 그것이 인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생활을 토대로 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생활을 토대로 하지 않은 문화란 잉크가 없는 만년필처럼 무의미하고, 나무가 없는 산처럼 살벌하다. 그런데 인간은 그 생활이 올바른 생활임을 요구한다. 이는 이성을 지닌 인간의 의무이자 본성이다. 그러나 올바른 생활이란 해변에 밀려오는 해조(海藻)처럼 자연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가장 신성한 인의적(人意的) 노력을 필요로 한다. 즉 자신의 생활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올바른 사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생활은 올바른 사상에서 나온다. 올바른 사상은 올바른 실재(진리)의 연역체계이다. 진리의 빠는 영겁성이고, 그 삶은 보편성이다. 영겁성이란 시간적인 무한을 의미하고, 보편성이란 공간적인 타당성을 의미한다. 시간적으로 무한하고 공간적으로 확충 타당한 것은 절대이자 신이자 성(聖)이다. 맹자가 일찍이 신성이라는 글자 뜻을 풀어 “충실하고 광휘(光輝) 있는 이것을 대(大)라 하고, 대로서 이를 화(化)함을 성(聖)이라 한다. 성으로서 이를 알게 되면 이것을 신(神)이라 한다”라고 한 것처럼, 대(절대)이자 신성한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유한한 인간의 오성적(悟性的)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고, 옳고 그름이라든가 아름답고 추하다는 등의 인간적 가치 판단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 중에 지금도 여전히 인간에게 현현되고 있는 실재는 그야말로 우리 국체(國體)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이는 나 혼자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고사기(古事記)』·『서기(書紀)』·『만엽집(萬葉集)』 등을 비롯한 수많은 데서 볼 수 있는 야마토민족(大和民族)⁶⁹⁾의 일본국체에 대한 실감의 표현은 모두 이를 실증하고 있다.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의 교육칙어에는 이 점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즉, “이 가르침은…… 고금을 통틀어 어느 시대에서도 그릇됨이 없었고, 나라 안팎에서도 그릇됨이 없었다”라고 하시며, ‘이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국체를 드러내 보이셨고, ‘고금을 통틀어’라는 것으로 시간적인 무한성을 드러내 보이셨으며, ‘나라 안팎’이라는 것으로 공간적인 객관 타당성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와 같이 이미 진리인 일본 국체는 시간적인 무한영속을 본성으로 하는 동시에 공간적인 세계보편을 속명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의지는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우리 ‘국어’⁷⁰⁾의 오늘날의 사명은 이 진리

69) 고대부터 일본 본토에 살고 있다는 민족, 즉 일본민족을 말함.

70) 일본어.

를 세계에 전달하는 데 있다. 일본 국어의 27세기의 세계사적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일본 국어는 그 자체가 일본문화의 한 형태인 동시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언어가 지닌 문화적 침윤성으로 언어로서의 최대 명예-진리를 전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이 명예는 다른 어떠한 국어도 이를 담당할 자격이 없다. 하물며 과거의 말인 그리스어·라틴어도 예전에는 문화로 꽃핀 이력을 갖고 있어도, 현재와 장래의 중대한 임무를 맡을 수는 없다. 이 임무와 명예는 일본 국어에 의해 비로소 온전히 담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국어는 황송하게도 진리인 우리 국체의 주체이신 폐하께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 진리이고, 진리란 원래 결코 복잡하거나 기괴한 것이 아니다. 이리하여 언어는 자연히 실재(진리)에의 열쇠인 사명을 갖고 결국에는 문화에 실재(진리)의 근거를 부여한다. 즉 언어는 형이상학적으로는 미와 진리의 교류에서, 형이하학적으로는 진리와 문화의 교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개체로서의 사명을 갖는다.

3. '진리의 사도'로서의 일본 국어

개개 생활은 각자의 감정이나 의지를 유통시키기 위한 작은 통로를 필요로 한다. 다른 생활에서 격리된 생활은 생활의 의의가 없다. 올바른 생활을 다스리는 올바른 사상의 진리는 개개 생활 간의 작은 통로에서 작은 통로로 흐른다. 언어라는 배를 타고, 이리하여 일본 국어는 사상에서는 진리를 보편화하고, 문화에서는 진리를 심고, 생활에서는 진리를 운반선으로 한다. 사상은 황도사상으로, 문화는 황도문화로, 생활은 황도생활로, 향후 세계의 모든 길은 일본 국어의 안내를 받으면서 모두 일본으로 통해야 한다.

일찍이 고대사는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었다. 근세사는 앵글로색슨으로 향하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길은 가시밭길이고 구불구불한 길이며 도착점은 결국 진리를 가장한 힘과 세(勢)의 화신이지 않았던가. 오늘부터 세계의 모든 길은 올바른 목적지로 통하고 있다. 이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의 응구(雄叫)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 국어의 세계사적 사명은 27세기의 새로운 학문으로서 '국어의 철학'을 내세운다. '진리의 사도'는 일본 국어에 부여되어야 할 새로운 명칭이다.

옛날 옛적 그리스어·헤브라이어·라틴어가 각각 언어로서 세계사적 사명을 맡으려고 했다. 최근에는 앵글로색슨이 사용하는 영어가 세계에 군림하려고 했다. 이는 세계 모든 길을 그들의 권력 아래 집중시키려 한 것의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스스로 '진리의 사도'라는 자각을 결여하고 있었다. 진리를 전달하는 운반선이 아니라 힘을 보내는 선풍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 국어가 지닌 사명과 그들의 사명은 외형에서는 비슷하겠지만 내용에서 완전히 달랐다. 문화의 이름을 빌려 침략을 일삼았고, 종교의 미명으로 위선을 행했다. 러시아는 분노했고 인도는 통곡했다. 그들은 언어를 잘못 사용했다. 진리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로 전달하는 데 진리를 이용할 수 없는 대신 침략과 위선, 폭풍과 퇴폐를 주었다. 그 결과는 그리스어도 헤브라이어도 라틴어도 전달해야 할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죄로 사어(死語)라는 벌을 받았고, 영국어도 완전히 동일한 죄목으로 전자의 전철을 밟고 있다. 전달해야 할 일본 국체의 진리를 지닌 일본 국어는 다행스럽다. 이 국어를 사용하는 일본 국민은 영구

히 27세기의 영광을 담당해도 좋다.

우리는 언어학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에서 이론을 논할 자격은 없다. 일본 국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일본 국어는 아름답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라고 강요할 자격도 없다. 다만 일본 국어는 진리를 갖고 있는 국가의 국어이고, 진리의 주체이신 폐하께서 사용하는 국어이며, 진리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국어이기 때문에 이 국어를 사용하라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을 뿐이다.

4. 국가사명으로서의 언어

이 외침은 개인의 외침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 국가의 사명은 엄숙하고 진리는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진리를 국가가 명할 때 이 명령은 조금도 불복종을 허용하지 않는다. 연민도 인격도 눈물도 웃음도 완전히 극복한다. 로마 기원 400년경 만리우스는 국가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전쟁을 일으켜 대접을 거둔 자신의 아이를 사형에 처했다. 사약을 마신 소크라테스도, “천하에는 아직 한 명의 진정한 왕이 없다”라고 외친 루소도 국가의 명령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도, 혹은 신민의 몸으로 군주의 비판을 감행하면서도 그래도 그들이 속한 국가적 조직 속에서 살았고, 그 국가적 조직의 명령으로 죽었다. 심지어 절대적인 전제자를 극도로 배격하는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도 그 대표자인 스탈린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게다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언어를 사용하고, 루소는 프랑스 국어, 러시아인은 러시아 국어를 사용한다. 루이왕조가 붕괴해도, 로베스피에르가 죽어도, 나폴레옹이 섬으로 유배되어도, 프랑스에는 프랑스로서의 국가적 명령이 존속하고, 또 프랑스의 국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서력 15세기까지 서양에는 올바른 의미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국가의 의미에 적합한 말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Civitas(도시) · Respublica(공화) · imperium Regium(군주 국가) · Stato(폭력으로 군주가 된 자 및 그 가신, 독일어 Staat, 영어의 State의 어원)이라는 말은 있어도 일반적으로 국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이 소속한 조직적 단체라는 의미를 표명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이 소속단체 안에서 그것이 명하는 규율을 지키면서 살고 죽었다. 어느 한 규율을 배반하고 혁명을 일으킨 인간들도 혁명 후에는 다른 규율적 명령 아래 자신을 구속했다. 이와 같이 엄정한 의미의 국가를 소유하지 않았던 인간조차, 또는 불법적인 명령을 발한 국가에 속해 있던 인간조차, 또는 전제적인 국가를 혐오했던 인간조차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속한 국가적 조직의 명령을 지키고 소속 국가의 국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두 가지 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국가의 명령이라는 것은 거기에 속한 인간의 개인적 의지 여하와는 무관하게 절대적이고 준엄하다는 사실, 두 번째로 인간이 속하고 생활하고 있는 생활적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숙명적이고 불가피적인 것인가 하는 사실이다. 국가를 부정할 자도 어떤 형태로든 국가적 규율(명령)의 장외에서 생활할 수 없었다는 것은 첫 번째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국가를 부정할 자조차 그가 속한 국가적 환경의 말을 생활상의 일상어로 사용했다는 것은 두 번째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국가 명령은 절대적이라는 점을 우리나라에서 고찰할 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군민일체(君民一體)의 신의 나라이다. 신성하고 절대적인 영역이다.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어

능위(御稜威)가 신으로서 영속하신 황국이다. 불역불변(不易不變)이기에 실재(진리)이고, 실재(진리)이기에 폐하는 현인신(現人神)이시며, 현인신의 적자(赤子)이기에 일본 국민은 모두 진리인 국체를 받드는 것이다. 야마토(大和)로서 거대 가족제도의 국가적 성격은 이러한 장엄한 국체의 산물이다. 항상 국체의 변질이 일어나고 주야로 폭군의 전제에 고통 받고 있던 외국의 백성들조차 국가의 명령을 절대시켰다. 하물며 진리인 국체를 중심으로 군신의 야마토(大和)가 신성화되고 있는 일본 국가의 명령이 그 국민에게 어떠한 것인지는 자연히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즉 신성한 일본 국가의 명령은 명령인 동시에 준수이고, 타율인 동시에 자율이다. 왜냐하면 일본 국체는 일본 국민이 받드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폐하 자신도 국체 속에서 자율하시기 때문이다. 국체에 기초하는 폐하의 어능위인 명령은 바로 국체 아래 살아가고 있는 국민 전체의 총체적 의지가 계시된 규율이기 때문이다. 국민 각자가 스스로 준수하려는 자발적 마음가짐을 계시하고, 용기를 주고, 실행하려는 권리에 실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일본 국가의 명령이다. 일본 국가가 중대사에 직면할 때 국민의 여론이 언제나 통일적인 것은 아니고 갑론을박하는 자들이 물론 없다고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번 이에 관한 대조(大沼)의 환발(渙發)이 있자, 국내의 소란은 순식간에 한 가닥의 흐트러짐도 없이 직선 방향으로 정렬되어 버린다. 이는 우리 역사가 명시하는 바인데, 그 까닭은 개개 국민들이 그 유한한 지능으로는 끝내 적합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대조의 환발에 의한 어능위의 계시에 의해 비로소 명확히 진리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송하게도 메이지천황의 교육칙어에서

짐은 신민들과 함께 이 길을 소중하게 지키고 모두 이 길을 체득,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야말로 이러한 사정과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군민일체의 일본 국가의 명령으로서 “일본 국민은 일본 국어를 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 이 역시 명령인 동시에 1억 국민의 자발적 의지가 되어야 한다. 물론 실제 문제로서는 일본 국민들 중에도 다소는 생활은 구래(舊來)의 사회적 환경을 달리하는 결과로서 일본 국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현상임을 고려한다면, 일본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한(진리)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신념과 서로 다른 환경을 개선·극복하는 것을 통해 영혼이 명하는 바 그대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유한한 인간의 생명이 무한을 동경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는 자이며, 생명에 대한 기만자이자 무한에 대한 모독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진리는 우리 안에 있으며, 또 진리를 밖에서 감싸고 있다. 실로 우리 국체는 개아(個我)에게 내재적 진리인 동시에 초월적 진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지 일본 국어를 상용한다 해도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일본 국민은 일본 국어를 상용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세계의 인류는 일본 국어를 상용해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변하는 위대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 일본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한하고 진리인 일본국체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기쁨임을 체득해야 비로소 이성을 지닌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일본어를 사용하는 기쁨을 투철하게 느끼게 할 수 있다.

5. 세계어로서의 일본 국어

별이 빛나고 있다. 태양이 떠오르고 진다. 둥근 달이 나타나고 숨는다. 원시인은 이를 보고 놀랐다. 경이로움은 학문의 시작이라고 한다. 일본인을 제외한 모든 학자는 경이로움으로 시작된 학문의 태도를 수천 년을 거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원시적인 형태 그대로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경이로움의 대상인 실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학문은 시작을 경이로움이 아니라 계시에서 시작했다. 실재는 거기에 있었다. 존재하는 바의 실재를 열어 보이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일본인 이외의 인류는 처음부터 없는 것을 구했다. 따라서 ‘경이로움’은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연구의 태도로서 세 가지 요소를 들겠다. ‘무엇을’·‘어떻게’·‘왜’라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연구 태도는 의혹에서 시작해서 의혹으로 끝난다. 이러한 연구 태도는 그들의 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진리에는 베일이 싸여 있다고 했다. 우리는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진리의 빛을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우리의 어두운 이성으로 수많은 별이 빛나는 하늘의 비밀을 읽어낼 수 있을까 하는 말도 했다. 서양 기원전 소포클레스를 필두로 한 그리스 비극 작가들은 모두 인간생활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품고 죽었다. 이런 감정은 쇼펜하우어의 인생철학에, 흄의 회의론에 학문적인 체계로까지 스며들었다. 신학의 노예인 중세철학은 의혹에 대답하기 위해 불가사의한 신을 들고 나왔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신이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로 겨우 의혹적 불가지(不可知)에 대한 자기변명을 했다. 정통과라 불리는 칸트도, 그 뒤의 리케르트도 후설도 실재를 찾아서 두뇌적 가공을 설정했다. 진정 실재가 그들에 의해 발견되고 인류에 빛을 비추었다면 목적으로 보건대 이 실재는 인류의 생활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주어야 한다. 그런데 ‘사물 자체’도 ‘가치’도 ‘현상’도 결국 인간의 생활과는 단절되어 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생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고 물었다. 그 결과 고민한 끝에 그들은 인간에게 허용된 이성을 총동원해서 두뇌에 의한 환영적 실재를 고안했음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번거롭고 복잡한 이론은 모두 이 가공적 고안을 입증하려 한 쓸모없는 노력의 표현이다. 그런데 일본인은 유구한 옛날부터 자신 위에, 자신 안에, 자신 주위에 실재하는 실재를 갖고 있었다. ‘무엇을’이라는 것 대신 ‘이것을’, ‘어떻게’라는 것 대신 ‘이와 같이’, ‘왜’라는 것 대신 ‘이를 위해’라고 생각했다. 진리인 일본국체를 자신 위에 실재로서 받들고, 그 안에 실재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주위에 국제적인 문화와 생활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인은 ‘국체를’ 배우고 ‘국체가 명하는 대로’ 생활하고 ‘국체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동시에 받드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본의 학문은 실재하는 국제에서 시작하고, 끝날 줄을 모른다. 외국의 위대한 사상의 선배들이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실재를 일본에서는 삼척동자도 갖고 있었다. 무에서 유를 귀납하려는 것과 유에서 유를 연역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사회는 그 자체의 필연성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이제 분열의 과거를 거쳐 단일화를 향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 교통의 발달·생산의 증가·문화의 교류는 이 사회의 단일화 운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는 이윽고 단일화된 사회에 진리인 우리 국체의 빛이 드리우는 예비행동이고, 동시에 진리인 우리 국체의 전령인 일본어가 세계어로서 등단하는 과정이다. 일본어로 우리는 국체를 배우고, 일본어로 국체를 명령하고, 일본어로 일본 국체의 환경

에서 생활한다. 이는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단일화 될 터인 사회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왜냐하면 일본 국체는 실재하는 진리이고, 진리는 인류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치로서 인류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웅대한 일본 국어의 형이상학적인 사명을 자각했다면, 각자 그가 속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하루라도 빨리 그것의 형이하학적 실현을 기다리며 노력하는 것이 이성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인간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 날은 성스러운 27세기에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이 예언은 대붕(大鵬)의 날개에 타고 무한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들며 있다. 그리고 인류에 부여된 모든 숙명적 어두운 그림자를 · 슬픔을 · 고뇌를 · 만가(挽歌)를 영구히 지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인류가 결국 세계어로서의 일본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심각한 인간적 본성에 의거하는 바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녹기 일본문화연구소원)

〈출전 : 星野栞河, 「日本語の哲學－なぜ人類は日本語を使ふやうになるか」, 『綠旗』第7卷 3號, 綠旗聯盟, 1942년 3월, 106~115쪽〉

10. 송금선(宋今璇)

1) 단체적 국가관념 주입에 전력

덕성여자실업학교장(德成女子實業學校長) 복택영자(福澤玲子, 후쿠자와와)⁷¹⁾

1. 학교 사정에 따라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요마는 우리 학교에서는 전시(戰時) 국민생활에 중요한 건강을 몹시 생각한 바 있어와 생도들의 체력을 힘써 온 결과 병약으로 중도퇴학을 하거나 어떤 사고를 이르게 본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 겨울에도 생도들의 저온(低溫)생활을 훈련하는 의미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난로를 낮게 한기(寒氣)의 정도를 보아 사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수(教授) 중간시간을 이용하여 생도전체의 체력(體練)훈련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 절대 필요합니다.

생리적으로 보아 남녀의 구별이 있겠지마는 나라가 정말로 남자에게 모든 일을 매기고 여자는 한가히 침식에만 열중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에게도 군사교련의 절대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결과는 아직 미약하나마 전체 생도들에게 군사교련을 식키는 중입니다. 특히 조선 가정에서 자라는 여학생들에게 지금같이 국가가 비상시에는 국제적(國體的) 국가관념을 인식시키는 데 필요하거니와 아직까지 전시생활에 경험이 없는 조선 가정에 여학생을 통하여 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싶습니다.

71) 송금선(宋今璇)의 창씨명.